



2013년 사랑의 쌀 재정 결산 및 행사 평가 기자회견에서 관계자들이 결산 내역을 발표하고 있다.

“영리 기업도 종교자유 누릴 수 있나” 연방대법원에서 소송 중

미국의 종교자유에 역사적 이정표를 쓰게 될 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3월 25일 시작됐다.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낙태 및 피임 강제조항을 거부하겠다는 하비로비 사와 이를 강제하겠다는 미국 보건복지부 간의 소송, 이른바, 시벨리우스 대 하비로비 소송(Sebelius v. Hobby Lobby Stores, Inc.)이다.

이 소송의 핵심은 수정헌법 1조에 명시된 종교자유가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에만 국한되는 것인지, 아니면 영리 목적의 기업에도 적용되는지에 대한 것이다. 만약 기업도 고용주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종교자유를 누릴 수

있다면,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을 거부할 수 있겠지만, 종교자유가 없다면 낙태 조항을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오바마케어의 낙태 조항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미국의 근간이 되어 온 종교 자유에 대한 적용 범위를 다루는 매우 중요한 소송이 되는 것이다.

이 소송의 구두변론은 3월 25일 열렸다. 이 시간은 양측이 법적 논리를 겨루는 가장 중요한 과정으로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거침없는 질문 공세에 답해야 하며 언론들도 이 과정을 매우 상세히 보도하기에 여론의 흐름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다. >>8면에 계속

“사랑의 쌀 재정 투명하게 지출... 동포사회에 감사”

2013년 행사 재정 결산 기자회견 열려

2013년 사랑의 쌀 나눔운동에 참여한 단체들이 재정 결산 및 행사 평가 기자회견을 4월 1일 은혜한인교회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사랑의 쌀 운동 총괄회장 한기홍 목사를 비롯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박효우 목사, 옐렌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민경엽 목사, 미주성서화운동본부 상임회장 한기형 목사, 남가주한인목사회 회장 정종윤 목사 등 이 행사의 주관, 주최측 대표들이 참석했다.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교회와 사회에서 사랑의 쌀에 기부한 총 금액은 83,893.53달러에 달했다. 이 중 쌀값으로는 49,879달러가 사용됐으며, 활동비로 3,514.75달러, 광고비로 8,480달러, 행정비로 2,253.93달러가 지출돼 총 지출은 64,127.68달러였다. 잔액은 현재 19,765.85달러로 집계됐다. 주최측은 전체 모금액의 83.03%가 쌀값에 사용됐으며 광고비가 10%, 행정 및 활동비가 6.87% 사용됐다고 보고했다.

이들이 쌀값 49,879달러로 구매한 총 쌀은 9,681포였으며 15파운드 쌀의 구매 가격은 시세에 따라 최대 8.50달러에 달하기도 했지만 평균적으로 5.15달러를 유지했다. 실제 쌀 구매에는 전체 재정의 59.46% 밖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이를 83.03%로 기록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잔액 19,765.85달러로 라면 구매에 부활절에 다민족과 불우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기 때문이라 답했다. 이 행사에 잔액을 사용하고 나면 전체 모금액의 83.03%가 결국 나눔 운동에 사용된 것이라 설명했다. 다만 이 잔액 중 일부는 동포사회에 감사 인사를 전하는 광고비로 지출할 것이라 단서를 달았다.

행사 총결산을 하는 이 시점에서 잔액이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박효우 목사는 “남가주교협이 처음 행사를 주관하다 보니 기부 약액과 실제 기부액 등에 대한 예측이 부정확해 쌀 구매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하는 한편, “후원자들이 행사가 마무리 되는 시점까지 계속 후원

금을 보내오에 따라 쌀을 구매할 시간적 여건이 허락하지 않은 것도 이유”라고 설명했다.

전체 재정 중 ‘10% 이상’이라는 상당한 비율이 광고비로 지출된 것에 대해서 박효우 목사는 “광고 규모에 대한 계획에도 차질이 있었다. 제가 미숙했다”고 해명했고 한기홍 목사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홍보가 필요했음을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활동비로 기록된 3,514.75달러에 대해서는 그 사용처가 대부분 모금과 행정을 위해 일한 직원들의 임금으로 사용됐기에 기자회견 중 이 항목의 명칭을 인건비로 정정했다. 이 비용은 2013년 11월부터 2014년 1월까지, 3개월간 이 행사의 전산 작업, 행정 작업 등을 담당한 5명에게 지급된 총액이다.

활동비와는 별개로 기록된 행정비 2,253.93달러는 사랑의 쌀에 부착하는 스티커와 행사용 명함 제작비 1070달러를 제하면 1183.93달러로

주로 각종 사무용품, 식비 등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모든 발표에 앞서서 한기홍 목사는 최근 남가주교협과 성서화본부 간의 마찰을 염두한 듯, “수년째 동포사회를 섬기는, 이 보람된 행사가 단체들 간에 발생한 갈등으로 인해 그 좋은 의미가 희석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남가주교협이 주관한 지난해 행사의 모든 재정에 대해 15명의 단체장들이 영수증을 확인하고 감사한 결과, 절차상 몇 가지 미숙한 점은 있었으나, 전액 투명하게 지출됐다. 이 운동에 함께 해 준 동포 사회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여기서 한기홍 목사가 지적한 미숙한 점은 주로 성서화본부에서 남가주교협으로 행사 노하우나 데이터들이 잘 인수인계 되지 않아 남가주교협이 불필요한 에너지와 재정을 지출한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한기홍 목사는 “남가주교협과 성서화본부 간에 서로 사과하고 사과 받았다”고 언급했다. 성서화본부의 지난 4년간 행사 재정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이 잘 되었음을 확인했다”고만 말했다.

이에 대해 성서화본부 한기형 목사는 “성서화본부의 지난 4년 재정에 대한 모든 서류를 받아 확인했다. 현재 실무자인 이성우 상임본부장이 한국 출타 중이라 구체적 내용에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했다. 그는 “주관처가 남가주교협으로 이관될 때 좀더 행정적으로 매끄럽게 해야 하는데 제가 불민해서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어찌 되었거나 교협이 살아야 교계가 산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인적으로도 교협을 돕겠다. 그간 일들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남가주교협은 2013년 행사에 사용된 모든 재정에 대해 영수증 원본과 수표 사본을 첨부해 공개했다. 이에 한기홍 목사는 “2013년 행사는 동포 여러분들의 관심과 후원 속에 성공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고 감사드립니다”고 전했다.

성서화본부 측은 “이성우 상임본부장이 귀국한 후, 지난 4년 간의 재정을 공개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내부 조율을 통해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만 답했다.

김준형 기자

나라정비 ASE
나라 오토 덴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323.734.4881 | 월~금: 8am~6pm 토: 8am~5pm | 1201 S.Western Ave, LA 웨스트관과 12가

크리스천을 위한 **오바마케어 벌금면제 혜택**
 (H.R.3590 Religious Exemption)
월\$40~\$175
 • 수입과 신분에 상관 없음
 • 모든 의사, 병원 사용 가능
 • 한국에서도 사용 가능
 가입문의 213-700-9212
 www.christianmutual.org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담임목사 안기중

MUSICAL ETERNAL LIFE 2014 REDEMPTION

LA에서 만든 브로드웨이를 능가하는 초대형 뮤지컬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4월 11일(금) pm7:30, 12일(토) pm7:00, 13일(주일) pm6:30
 장소: 은혜 한인교회 비전센터 본당 / 150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

2012년 한국일보 - 연출과 노래의 안무가 뛰어난 미주 한인사회 최고의 뛰어난 작품이다.
 2013년 기독교일보 - 한인사회 사상 최대규모의 뮤지컬..평범 기획과 연기로 박수, 교회 문화 사역에 새지평을 열었다고 평가

주최: 은혜 한인교회
 주관: 창조문화 선교단
 후원: 복음방송,CTS, 한국일보, 중앙일보, 크리스찬 헤럴드
 출연: 한준수, 박선영, 권상욱, 김오기, 박우정, 문성수, Janet Lee, 서정숙, 정성애, 조형은, 신동혁, 송민영, 신비, 유진, 신정아, 오수열, 추형우, 김재익, 전용현, 사무엘전, Peter Yi, James Kim, 서지석, 손문식, 윤인자, 강권철, 정창현, 김상대, 우미선, David Lee, Nina Kim, 김병규, 서예원, Joyce Ahn, Ashley Kim, 안해송
 Heaven's Melody 아역배우 40명, 엑스트라 배우들 박카니외 120명

교문: 한기홍 목사, 극장: 이덕용, 연출/감독: 김현철,
 행정: 송민영, 부행정: 유한나, 신비, 서기: 서지석, 회계: 김병규,
 안무: 이수희, 음악감독: 서주원, 권상욱, 소품팀장: 셸리 황,
 관리팀장: 임상국, 의상팀장: 이계영, 의상팀원: 김희, 김덕희, 강선자, 강수아
 무대진행: 김진아, 임윤경, 무대장치: 우종수, 신사무엘, 김승기
 사업팀장 및 광고총괄: Ted Kim, 광고팀장: 김기덕, 비디오: 홍문학
 분장: 박지상, 이민정, 한별, 김주연, 이윤선, 번역 및 자막: 김나희,
 미디어팀장: 백승환, 미디어 감독: 김승욱, 음악감독: 최경태, 사진: Robert Choi, 아영주
 그래픽 디자인: 최의정, 이용옥, Heaven's Melody Director: Arlene Kim

Ticket : \$10
 예매처: Fullerton - 은혜사범(은혜 한인교회) 내
 LA: 조이 기독교 백화점, 기독교서점 센터
 Cerritos: 복음사
 온라인 예매: www.itickets.com
 대표전화: 714.446.6200
 은혜서점: 714.446.1006

OC목사회, 역대 회장단 초청해 방향성 모색

박대근 목사 “리더로서 행할 바 알고 성도들 이끌자”

36년 역사를 가진 오렌지카운티목사회가 제1회 역대 회장단 초청 간담회를 24일 로렘장로교회에서 30여 명의 역대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1부에서 설교한 박대근 목사는 “잇사갈 지파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형제들을 통솔하였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목사님들과 목사회가 하나님 백성의 리더로서 마땅히 행할 바를 알고 성도들을 이끌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2부 간담회는 김영찬 목사(회장)의 사회로 진행됐다. 김 목사는 현재 목사회가 어려움을 넘어 발전하기 위해 여러 전임 회장들의 경험과 고견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 목사는 “지금 목사회에서는 교회와 목사님들을 위해 임원들이 매일 저녁 7시부터 10



오렌지카운티목사회가 역대회장단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시까지 기도회를 갖고 있다”며 “이 기도회에 목사님들의 참여를 바라고 기도회를 통해서 목회자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목회 경험을 나누는 간증시

간이 있었다. 한 목회자는 “그동안 목회자의 초창기 활동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부흥회를 열고 기도하고 서로 도와주는 모임이었다”면서 “목사회가 서로 목회의 문제를 함께 나누

고 어려울 때 도왔던 모습을 되찾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또 목회자들은 현재 오렌지카운티 교회들의 90% 이상이 100명 미만의 교회들이기 때문에, 미자립 교회 목

회자들의 지친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목사회가 되어야 함을 다짐했다. 그동안 목사회와 OC교회협의회가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사역이 진행되어 왔는데 목사회는 목회자를 위해서 일하고, 교회협의회는 성도들을 위해 일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제안되기도 했다.

한편, 증경회장단에서는 초창기에 목사회가 오렌지카운티의 유일한 기독교 단체로 친교와 활동이 왕성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젊은 목회자들이 목사회에 들어오지 않는 안타까운 상황을 밝히면서, 교회협의회 임원들부터 목사회 회원이 되어서 상호 협력 단체가 되어, 서로를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는 권면을 하기도 했다.

박창민 기자

뮤지컬 “이터널 라이프” 고난, 죽음 그리고 부활...

4월 11일부터 13일까지 은혜한인교회 본당서 시작, LA 세리토스 플라튼에서 티켓판매

은혜한인교회가 4월 11일(금)부터 13일(주일)까지 본당에서 고난주간 및 부활절 특별 공연으로 준비하는 Eternal Life 2014 “Redemption”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즉, 자신의 몸을 단번에 대속물로 바치고 인간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용서와 부활을 그리고 있다.

이번에 세번째로 3년여에 걸쳐 공연되는 Musical Eternal Life 2014 “Redemption”은 동시 영어자막 플레이를 선보이며 이민 2세와 1세가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하는 가족 뮤지컬이다. 또한 다민족 크리스천들과 미 주류 사회의 문화인들이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동시 영어자막을 선보이면서 다민족 문화를 겨냥한 한인 사회 최초의 문화 공연이 될 것이다. 초대형 백그라운드 스크린에 프로젝터를 플레이하여 무대 배경으로 꾸미는 백 스크린 플레이는 기존 베너의 2D 형식을 넘어서 실시하는 3D형식(배우와 백그라운드가 함께 섞이고 움직이는)의 무대 연출이며, 배우들이 실제의 예루살렘 성전 뜰에서 연기하는 듯한 감동의 교민사회 첫번째 공연이 될 것이다.

뮤지컬 “Eternal Life” 2012년 시작되어 2013년까지 매해 연인원 6500



은혜한인교회가 특별 공연 이터널 라이프 2014 “Redemption”을 준비하고 있다.

명(3일간)이라는 수많은 관객들이 관람(약 1만 3000여명)을 했으며, 초등학교부터 청소년, 성인 그리고 노년층까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없이 쉽게 즐기고 관람할 수 있도록 기획 제작되었다. 금년에는 “Redemption” 즉 “구속”이라는 주제로 대본의 상당 부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대속적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어 제작되었다.

문화 사역국 연극 부서인 “창조문화 선교단”은 교민사회 10여개의 교회에서 재능있는 배우들이 함께 모여 초교파 뮤지컬 선교단 “창조문화 선교단”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까지 11년의 역사를 가진 초교파 창작 선교 공연단이다.

연출 및 음악과 안무가 뛰어난 작품이라고 평가가 되었던 뮤지컬 Eternal Life는 이번에도 브로드웨이 수준급의 뮤지컬로 제작되어지는데, 1~2층으로 꾸며진 무대위에 210명의 출연진과 40~50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호흡하며 250명이 참가하는 초대형 뮤지컬 공연이다.

창조문화 선교단은 한기홍 목사(은혜 한인교회 담임)가 고문으로, 국장에 이덕용 안수 집사, 연출 및 감독에 김현철 간사, 행정팀장에 송민영 집사, 안무에 이수희 집사, 음악 감독에 서주원 집사, 오페라가수 김호기 집사(천사 가브리엘역), 성악가 권상욱 전도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복음성가 가수 박선영 자매(간증녀 역), 성

악가 권상욱 전도사(미가엘 역), CCM 신인 가수 한준수 형제(예수역), 박우정 자매(약녀역), 조형은 형제(가야바역), 성악가 송민영 집사(막달라 마리아 역), 성악가 정성혜 사모(마리아 역), CCM 신인 Janet Lee, 등 성악가와 CCM 가수가 함께 구성되어 팝과 성악을 넘나드는 뛰어난 재능있는 보컬진들을 구성하고 있다.

특히, LA 최고의 복음성가 가수로 쓰임 받고 있는 박선영 자매와 오페라 가수 오래 활동한 김호기 집사와 성악가 권상욱 전도사는 교민사회에 가장 많이 알려진 인물들이다.

뮤지컬의 내용은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가장 비천함에 처한 인간의 극한 상황속에서 죽음을 맞이 하였다. 그는 그렇게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자신의 몸을 단번에 속죄의 제물로 드리셨지만,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왕이신 하나님 바로 그분이심을 그리스도의 용서와 부활을 통해 그리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된다는 줄거리이다.

이번 뮤지컬 “Eternal Life”는 김현철 감독이 극본과 노래가사 전곡을 썼으며, 작곡에는 정병화 씨가 30곡 전

곡을 작곡, 현대의 팝송 스타일과 클래식 오페라와 성악곡 스타일의 곡들이 모두 섞여 있어서 다양한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극본이 완성 되었다. 즉, 2세와 1.5세 그리고 1세가 모두 함께 관람해도 누구나 쉽게 음악을 이해하도록 창작 되었고, 깊은 성경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등 주로 4대 복음서를 토대로 창작 되어졌으며 4년에 걸친 기도와 성경 참조로 극본이 완성되었다.

뮤지컬 극의 길이는 약 2시간 5분이며, 무대위에 건축 공학으로 만들어진 Lower Stage 와 Upper Stage 가 완성되는 2층형 무대구조, 20개의 Moving Light와 특수 조명 시스템 및 멀티미디어가 함께 극의 구성을 이루는 건축공학과 전자 미디어가 만난 최상의 뮤지컬이다. 특히, 의상과 분장을 돋보이게 하는 블루 특수 조명 시스템, 브로드웨이 수준의 격상된 의상과 분장 등 뮤지컬의 외형적인 요소 또한 최고의 수준을 선보일 것이다.

▷티켓 가격 : 10달러
▷예매처: LA-조이 기독교 백화점, LA 기독교 서적 센터, 세리토스-복음사, 플라튼-은혜서점
▷문의: 714-446-1006(은혜서점) www.gracemi.com 박창민 기자

새빛한의원
Saevit Acupuncture clinic

323-735-6365 올림픽+하버드
3130 W. Olympic Blvd, Suite 380 Los Angeles, CA 90006

한방내과, 한방성형 & 통증클리닉

늘환자의 고통을 함께 나누며 환자의 몸이 지니고 있는 “자연치유력”을 살려내는 새빛이 되겠습니다.

수술없는 한방 성형

치진 턱선을 올려 젊음 유지

아름다운 여인이 되어보세요.

한방감기 특별처방!!

(5일분-\$35)

약력 북경중의약대학졸업 전 한의과대학 교수역임(삼리현의대) w

교통사고 · 각종보험 · 여행자보험

천천히 다 둘러보세요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3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GOLDEN GATE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골든게이트침례신학대학원에서

한영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목회학석사 (M.Div.) & 신학석사 (M.T.S.)

위치: GOLDEN GATE SEMINARY S SOUTHERN CALIFORNIA CAMPUS
골든게이트남가주캠퍼스 (251 S. RANDOLPH AVE, SUITE A, BREA, CA 92821)

지원 마감일: 7월 1일 (에비지원서 [PRE-APPLICATION] 는 6월 1일)

➤ 한영이중언어과정은

- 미래이민교회의 지도자들을 훈련시키는 목회자양성프로그램입니다.
- 세계최대의 개신교단인 남침례교회가 후원합니다.
- 본교의 자원과 커리큘럼이 활용됩니다.
- 성경적이고 선교적이고 세계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합니다.
- 탁월한 학문성과 교단의 지원 그리고 이민교회 목회자로서 온전히 구비된 미래교회지도자들을 위한 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주로 한영이중언어로 진행되지만 골든게이트신학대학원의 교수진과 자원이 충분히 반영됩니다. 북미주 최고의 학력인증기관인 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와 Western Association of Schools and Colleges (WASC)에서 학위를 인정하는 프로그램입니다.

CONTACT FOR CONSULTATION: 714) 256-1311 EXT. 124 KEB@GGBTS.EDU
FOR MORE INFORMATION: WWW.GGBTS.EDU/KEB

기독교일보 4/3/2014 2면 MCYK

탈북이민자의 '엔키아선교회' 지금껏 받은 사랑 돌린다

사우스베이나눔장로교회(김영구 목사)가 창립 4주년 감사예배 및 NKIA(이하 엔키아, north koreans in america)선교회 설립예배를 3월 30일 오후 5시에 사우스베이나눔장로교회에서 드렸다.



사우스베이나눔장로교회가 엔키아선교회 설립예배를 3월 30일 오후에 드렸다.

엔키아선교회는 북한 이민자들의 모임으로, 상호간의 친목을 나누고 협력하며, 미국 내에 있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세계 곳곳의 이웃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예배는 1부 4주년 감사예배, 2부 엔키아선교회 설립예배로 구성된 가운데, 사회 김영구 목사, 기도 김영배 목사(대한예수교 장로회 남가주교회 부교회장), 설교 남가주교회장 강부용 목사, 임명식, 설립목적 소개, 축사 류당열 목사(엔키아선교회 고문), 권면 김상기 목사(소망장로교회), 후원회장 인사 박병구 목사(성재복음선교회 원로), 축도 양홍열 목사 순으로 진행됐다.

감을 밝혔다. 엔키아선교회는 무언가가 항상 필요한 사람들이라 인식되어 온 북한 이민자들이, 받기만 하는 것을 넘어서 이웃과 홀리스, 노약자,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돕고, 또한 그러한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됐다.

축사를 한 류당열牧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38선이 무너질 줄 믿는다. 앞으로 교회와 선교회가 기도의 재단을 쌓아서 남북통일에 기여하도록 하자"고 강조했다.

후원회장으로서 인사를 한 박병구 목사는 "탈북자들이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에서 정착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며 "우리 이민자들이 마음을

다해서 사랑으로 기도하고 도와주길 바란다. 1달에 1구좌에 해당되는 10달러 씩 도움을 손길을 펼친다면 엔키아선교회에 큰 힘이 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엔키아선교회는 오는 12월에 사우스베이나눔장로교회에서 후원의 밤을 개최한다. 이 자리에는 선교회 부회장인 탈북이민자 sammy hyun 집사의 간증과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탕자처럼"을 부르는 찬양사역자로 유명한 전용대 목사의 찬양집회가 있을 예정이다.

문의: (310) 404-6219
토마스 맹 기자

새벽강단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까?

지난 3월 25일 제자들교회의 박중순 목사는 "하나님의 선택의 자리에 있습니까?"(본문 삼상 24:1-15)를 제목으로 설교했다. 다음은 설교본문.



박중순 목사.

하나님은 선택을 통해 축복의 삶으로도 저주의 삶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다윗은 사울을 살리는 선택을 했고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 두 명의 삶의 선택이 삶의 가르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당장 사울을 죽이면 자신이 살고 자신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앞의 이익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당장 다윗을 죽이는 것이 자에게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끊임없이 죽이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택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선택을 따라 살았습니다. 사울은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왔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그런 그러나 그의 옷자락만 베었습니. 5절에는 사울의 옷자락을 베어 버린 것. 그 마저저도 마음이 찢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 할 수 없다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선택을 중심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 자신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자각했습니다. 12-15절 사이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서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2절에서 15절까지 두 번이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해 달라고 합니다. "나 또한 기쁨 부음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나이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한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증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사울을 해하지 않았습니. 사울과 같은 사람들은 어느 시대나 늘 있습니다. 기쁨 부음을 받았지만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의 사명을 다하고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왜 목사가 저 정도밖에 하지 못하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목사가 되고 보니 늘 깨어서 살 수 없는 죄인이란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하나님의 기쁨부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에게 판단과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너무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24:6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와 기쁨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와 기쁨 부음을 받은 자가 됩니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자란 것이다. 사울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운데 놓였으나 그 역시 하나님의 기쁨 부음을 받은 자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금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덕적 기준에 따라 선택하며 사는 것을 봅니다. 물론 그 선택도 훌륭합니다. 이런 선택으로 위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해야 합니다. 아무리 윤리적이고 도덕적이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하지 않으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 선택을 택하도록 강요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

이런 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인규 기자

주님세운교회 브라질 겐세마네교회 단기선교 다녀와



주님세운교회가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브라질 벨로 호르존치 겐세마네 교회를 방문해 부흥회를 이끌고 단기선교를 했다.

지난 3월 12일부터 16일까지 주님세운교회(박성규 목사)는 브라질 벨로 호르존치 겐세마네 교회를 방문해 부흥회를 이끌고 단기선교를 했다. 브라질 3대 교회 중 하나로 꼽히는 벨로 호르존치의 겐세마네교회는 교인 수 3만 명에 달한다.

설교한 박성규 목사는 '백부장의 칭찬받는 믿음'(눅7장)과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마6:13)이란 제목으로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기적을 체험하며 복의 통로가 되자"는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단기선교에 동참한 주님세운교회 성도 18명이 준비

한 위임과 찬양, 박정희 권사의 '죽을 병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의 간증도 이어졌다. 또 부흥회 이후 20일(목)까지 박 목사와 성도들은 브라질 마켓, 거리, 공원 등에서 찬양하며 복음을 전했다.

손지훈 기자

보험료를 대폭 낮추었습니다!

가장 싼 자동차 보험 알선

음주운전자들을 위한 특별 자동차 보험 각종 사업체, 화재보험 및 모든 보험문의 환영

24hr 한국어 서비스

굿모닝 보험 213.761.9990 KEVIN YOO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엮습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LA 한남체인내 건강제품코너

인터엔이 직접 캔 **천종야생 산삼**

매실, 홍삼, 비타민, 녹용, 각종 한방 농축즙

213)386-3585
www.uslahealth.com

LOS ANGELES ORT COLLEGE
NON-PROFIT ORGANIZATION
ACCREDITED BY ACCET www.LAORT.edu

한국인 상담

그레이스 (Grace)
직통: 213.703.6863
Office: 323.966.5444

고소득 직업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도와 드리겠습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저소득층 정부전액 보조금 지급(유자격자) - ESL Program Only -

상담필수 8:30AM~7:00PM

- 시민권 신청
- 저소득층 메디칼 신청
- FREE Food Stamp
- HEAP(Utility Ball Payment)
- Social Service
- WIA, Childcare, Transportation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드립니다.

• 방문비자(B1, B2)를 학생비자 F-1으로 변경 가능

유학생은 ORT학교 졸업 후 워크퍼밋과 소셜NO.를 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 메디칼 오피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Medical Office management (AA Degree)
- 건축설계 ... Computer Aided Design & Drafting
- 의사보조 ... Medical Assistant
- 약사보조 ... Pharmacy Technician
- 정부 전액보조금지급(유자격자) 학자금 보조 및 융자
- 취업추천 및 직업소개(전문 직업, 높은 취업률 보장)
- 무료 버스표, ORT 학교 장학제도 보유
- ESL ... English as a 2nd Language (ESL)1~6단계, 회화반
-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학사취득 ... Business Management (AA Degree)
- 아카운팅 AAS 학사취득 ... Accounting (AA Degree)
- 그래픽, 포토샵 ... Computer Graphic & Desktop Publishing (Adobe Illustrator)
- 편리한 수업시간 대 : 아침반, 저녁반
- 유학생을 위한 1-20 발급 (이민국 SEVIS 인정 대학, 소셜 넘버가능)
- 교수진 : 전원 남녀 미국인교수

약도

Los Angeles : 643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48 (Wilshire+Lajolla)
Van Nuys : 14519 W. Sylvan Street, Van Nuys, CA 91411 Tel. 818.382.6000

New York : Forest Hills
Chicago : Skokie

“나태한 한국 교회, 믿음의 선조들 순교의 정신 본받자”

효사랑 선교회와 함께 ‘신앙의 뿌리 찾기 운동’ 이끄는 김영혁 장로 인터뷰

자기 교인 늘리기, 큰 교회 건물 짓기에만 급급하며 복음을 위한 순례의 길보다는 세상 속의 안주, 세상과의 타협을 추구하는 소수의 한국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 뒤에는 ‘순교의 피’를 흘렸던 한국 기독교의 뿌리,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으로부터 단절이 자리잡고 있다. 9년 간 한국기독교성지순례 선교회의 부산지회장을 담당하며 한국교회 역사의 뿌리를 찾고, 선조들의 믿음을 오늘날의 크리스천들에게 전수하는데 힘써온 김영혁 장로는 오늘날 교회가 나태에 빠진 것은 이 뿌리를 잃어버리고, 이 선조들의 치열한 정신을 망각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이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을 바탕으로 효를 실천하며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계승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효사랑 선교회는 김영혁 장로와 함께 ‘신앙의 뿌리 찾기 운동’을 기획했다. ‘신앙의 뿌리 찾기 운동’은 한국의 중요 성지 방문해 ‘올바른 기독교 역사를 심어주고 선조들의 믿음을 전수해주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한 간증 집회를 하고 있다. 본지는 이 운동과 관련해 김영혁 장로와 대화를 나눴다.

-한국에서 어떤 사역을 했으며, 신앙의 뿌리 찾기 운동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

한국에서 기독교 성지순례 선교회 부산 지부를 운영했다. 국내에 기독교 성지 160 여 곳이 있다. 그 중 직접 방문할 수 있는 곳은 60여 곳이며 이 가운데 중요한 곳을 가이드 했다. 한국의 성지 순례가 중요하다. 성지순례라고 하면 이스라엘 성지순례만 떠올리는데 한국에도 중요한 곳이 많다.

선교자들이 한국이란 낯선 땅을 찾아와 고난, 핍박을 받으며 한국 땅에 묻히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다. 그들의 어려움을 기억해야 한다. 또 우리 선조들이 핍박을 받으며 순교의 정신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이 시대 크리스천

들은 알려야 한다. 한국 교회가 순교의 정신을 잃고 나태해진 상황에서, ‘선조들의 신앙을 본받아 복음을 한국과 미국에 전해야 하지 않겠는가’하는 의도에서 효사랑 선교회(대표 김영찬 목사)와 의논을 하던 중 신앙의 뿌리 찾기 운동을 하기로 결의를 했다.

“우리에게 신앙을 전수해 준 신앙인들 주기철, 손양원, 최권능, 조덕삼 장로 등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자”라는 의도에서 이 운동을 기획했다. 그 분들이 전해준 신앙 덕분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 우리가 신앙이 얼마나 변질됐나. 이 운동을 통해 우리 신앙을 바로 세울 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신앙을 전수해 주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신앙의 뿌리 찾기 간증집회를 어떻게 진행했나?

각 교회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관계되는 분들과 의논해서 그 교회 실정에 맞게 프로그램을 짜서 우리가 직접 가서 가이드 해준다. 우리 선조들의 신앙을 본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뜨거운 마음이 들어서 김영찬 목사님과 함께 시작하게 됐다.

-한국에서 기독교 성지순례 선교회를 하게 된 동기는?

성지순례회를 하기 전에는 은행에서 일했다. 퇴직 후, 성지순례 선교회를 맡고 있던 친구로부터 부산 지회장 자리를 맡아 달라는 제의를 받았다. 아무것도 몰랐던 터라 처음엔 거부했다. 그리고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 제의를 더 받았다. 그런데 마지막 제의를 받은 순간 머리가 마음에 뜨거운 영감이 왔다. 하나님의 일인데 세 번 이상 거절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처음에는 억지로 맡아서 했지만 하다 보니 누가 해도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란 생각이 들었고, 할 수록 뜻 깊고 가치 있게 느껴졌다. 하



김영혁 장로.

나님의 일이고, 선교사의 삶 속에서 일어났던 일을 하나 하나 찾다 보니 정말 그 보다 의미 있는 일이 없었다. 8년 간 이 성지순례회 일을 하며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맡기신 사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했다.

-소개해 줄만한 성지는?

기역자(기) 교회로 알려진, 김제 금산교회를 통해 섬김과 엄격한 신앙에 대해 얘기한다. 조덕삼 장로는 주인이고 이자의 목사는 마부 즉

노비였다. 그런데 장로를 뽑을 때 마부가 먼저 피택되고 주인이 떨어졌다. 500년 유교 문화에서 이것은 사회적 문제였으나 조덕삼 장로가 직접 나가서 “이자의 장로를 지금까지 존경해 왔는데 앞으로도 그를 섬기며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자 모두가 잠잠해 졌다. 그는 자기의 노비였던 자를 장로로 세우는 데 주저함이 없었다. 또 조덕삼 장로는 이자의 목사가 신학교를 다닐 때 모든 재정적 후원을 했다.

조덕삼 장로의 이야기는 평신도에게 귀감이 될 뿐 아니고 주의 종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다. 이자의 목사는 13회 뿐 아니라 해방 후 1947년 33회, 34회 때 총회장을 세 번 했다. 전후후무한 일이다.

-미주 한인들에게 전할 말?

한국에 미국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들어온 1884년으로부터 19년 후 한 민족이 하와이로 이주했다. 그것은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미국의 복음화를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듯 우리에게도 특별 사명을 주셨다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땅끝까지 이르러 내 백성이 되리라’는 말씀이 뜨겁게 와 닿았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한민족이 그런 포부와 자부심을 갖고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가 올해 추석전, 9월 1일 출국 4박 5일 동안 국내 성지를 돌리는 계획을 갖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 중이다. 조만간 여행사 광고를 통해 선착순 45명을 모집할 예정이다. 이스라엘에서 선교한 최국현 목사가 이 일을 담당하고 있다.

주디 한기자

골든게이트, 한영이중언어과정 7월 1일까지 지원

미남침례회(SBC) 소속 골든게이트침례신학교의 남가주 캠퍼스가 한영이중언어 목회학석사(M.Div.), 신학석사(M.T.S.) 과정을 개설해 차세대 한인교회 지도자 양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원 마감일은 오는 7월 1일까지다. 골든게이트신학교는 1944년 개교 이래 약 8천명에 가까운 졸업생을 배출한 역사를 갖고 있으며 복음적, 선교지향적인 학교로 손꼽힌다.

골든게이트신학교 자체만의 장점을 꼽는다면 우선은 미국 최대의 개신교단 남침례회의 직영 신학교이므로 사역의 기회와 폭이 상당히 넓다는 점이다. 교단으로부터의 재정 지원도 튼튼하기에 우수한 교수진이 폭넓게 포진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교단의 지원 덕에 학비가 타 신학교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며 남침례회 멤버일 경우 학비가 절반 이상 감면된다. 그 외 다양한 교내, 교외 장학 혜택이 주어진다.

북가주 샌프란시스코 인근에 분교를 두고 남가주 캠퍼스는 분교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학점 취득과 학사 관리가 남가주 캠퍼스에서 100%

가능하다.

이 중에도 남가주 캠퍼스에서 ATS의 인가를 받아 개설하게 되는 한영이중언어 학위 과정은 차세대 한인 이민교회 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그동안 목회학박사(D.Min.) 과정을 한국어로 개설한 몇몇 학교가 있긴 했지만 ATS의 인가 아래 목회학석사와 신학석사 과정을 한국어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는 전무했다.

이 두 과정은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다기 보다는 목회후보생이나 평신도 지도자 양성 과정에 해당한다 볼 수 있기에 이민교회라는 특별한 세팅 안에서 목회하려는 1세, 1.5세들에게 권할 만하다. 그동안 이민교회 내에는 “한국 신학교나 미국 신학교를 졸업한 목회자가 이민교회라는 독특한 컨텍스트에 적응하는 데에 과도한 에너지와 시간이 소요된다”는 비판이 있어 왔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남침례회 소속 학교이기에 한인교회와 신학적 정서가 잘 맞으며 한영이중과정이기때 이민목회를 지향하는 1세나 1.5세를 이민교회 세팅에 훈련시켜

줄 수도 있다.

이 과정의 부디렉터인 안상희 교수는 “골든게이트신학교가 남가주 지역의 이민교회, 특히 한인교회를 섬기겠다는 비전과 동기를 갖고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남침례회라면 백인 위주의 보수적인 학풍이 대부분의 인식이지만 골든게이트신학교의 경우는 서부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선교적이며 다문화적인 신학 성향도 수용하고 있다”면서 “이민자들을 위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래서 이 과정에 투입되는 정교수만 해도 5명이다. 한국어 구사가 가능한 2세 교수가 3명이고 한국 선교사 출신으로 한국어가 가능한 백인 교수도 있다. 안상희 교수는 1세로서 교수직을 맡는다. 수업은 영어 혹은 한국어로 이뤄지며 속제는 한국어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안 교수는 “모국어로 이뤄지는 강의는 한인들이 미국 신학을 보다 쉽게 이해하게 도우며 특히 한인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이민목회에 접근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 과정의 총디렉터를 맡고 있는 김영환 목사는 북가주 콩코드한인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으며 남침례회 전국총회 부총회장, 캘리포니아총회 부총회장을 역임하며 주류교계에도 잘 알려진 인물이다. 한인총회 총회장도 역임했다.

부디렉터인 안상희 교수는 목회자 자녀 출신으로 대진침례신학교를 졸업한 후 서던침례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를 받고 목회자가 됐다. 이 학교에서 신학으로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고 이 신학교와 사우스웨스턴침례신학교에서 교수를 역임한 바 있다. 텍사스의 알링턴은누리 침례교회에서 목회하며 한인이 거의 없던 이 지역에서 12명 되던 교회를 3년여만에 150명으로 부흥시키기도 했다.

자세한 문의는 안상희 교수(714-256-1311 ext. 124), michaelahn@ggbs.edu)에게 하면 된다. 학교는 251 S. Randolph Ave., Brea, CA 92821에 위치해 있다.

손지훈기자

2014 가을 한국 성지순례 에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에서는 한국 성지의 중요성을 깨닫고, 효사랑 선교회와 함께 오랫동안 한국 성지순례를 인도 해 오시던 김영혁장로(신앙의 뿌리 찾기 전문위원)와 함께 떠나는 한국 성지(순교지)순례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 한인 성도님들에게는 더 없이 큰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신앙의 영적 뿌리를 찾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고국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관심과 문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 대표 폴 최목사 드림.

※ 2014년 가을 한국 성지순례 일정 ※

- 일 시: 1차> 2014년 9월 1일~9월 6일(5박6일) 인원수 - 선착순 35명
2차> 2014년 10월 6일~10월11일(5박6일) 인원수 - 선착순 35명
- 내 용: 한국 선교지(순교지) 순례, 역사적 기념장소 순례
- 가 격: \$699+항공료(35명기준, 6월말 마감예정)
(현지사정에 따라 일정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문 의: 폴 최 목사 714-351-0124 E-mail: choigh1115@Gmail.com

※ 일정내용 ※

- 판문점 - 제3땅굴 - 소래 교회 - 제암 교회 - 유관순 생가(매봉교회)
- 해미 생매장 순교지 - 금산 교회 - 정읍 두암 교회 - 한국 선교역사 박물관
- 여수 애양원 - 웅촌 교회 - 문준경 전도사 순교지 - 양화진(외국인 공영 묘지)
- 영광 염산교회 - 영광 야월 교회 - 독립기념관등을 들고 해산하여 추석을 지내고 돌아오는 일정.

한국성지순례 설명회

일 시: 2014년 4월 5일 오전 10시
장 소: 은혜와 진리교회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 특 전

한 교회가 계획하시면, 그 교회에 맞게 준비 해 드립니다. 시니어 분들은 시니어 항공가격을 적용하여 드립니다. 항공료는 28년 역사의 파이오니아 여행사가 최저가로 보장합니다!

※ 후 원

은혜와진리교회, 중부교회협의회, O.C목사회, 파이오니아여행사, 한국 기독교 성지순례선교회부산지회등..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의 약속

요한복음 16:21-24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1.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신 이유

공생애초기(公生涯初期)부터 예수께서 12제자를 택하여 세우시고 그들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도록 깊고 오묘한 진리의 교훈과 필요에 따라 적요적소에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으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며 자신과 제자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해 오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걱정하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몇 일 뒤엔 택하신 자기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실 날이 다가오기 때문에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로 자신들과 그들에 의해 세워질 교회들의 문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해결 받고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2.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심

요한복음 9:31에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하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없으심은 죄인의 욕구는 죄짓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부탁)를 들어 주셨다간 그 죄인의 범죄에 동참하는 공범자가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의 기도를 들어 주실 수 없으심을 우리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3. "예수" 이름의 뜻

마태복음 1:21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이심이라 하니라"했습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1절에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하심으로 택하신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형틀에 못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셨다가 3일만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은 많은 성도를 인하여 십자가로 해산하시느라 당하신 고통을 잊어버릴 것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 철저히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죄 사하심을 받은 성도의 기도라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답 하시기 되겠기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죄 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13에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했습니다. 야고보서 5:13-16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 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 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목사)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도를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구원 하니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하심은 병자가 생겼으면 본인은 물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모여 기도할 때 먼저 모두가 서둘러 자신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사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 심령들로 병자를 위해 간절히 합심 기도하면 주께서 치료하시고 일으켜 주시겠다는 응답의 약속입니다. 교회는 병자가 생겼다고 괴로워하거나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 병자를 인하여 피차 회개하고 합심기도 함으로 영적 공동체의 단합된 결속으로 병마를 물리칠 수 있는 영적 승리와 부흥을 위한 기폭제(起爆劑)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4. 주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야

요한1서 5:14에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하셨으니 성도가 기도할 때 기도의 목적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을 기도하면 주님께서도 자기의 뜻이 속히 이루어지길 원하셔서라도 서둘러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2-3에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 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함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하심도 혈기, 정욕, 시기, 다름, 방탕을 목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들어 주시지도 않으실 뿐 아니라 그런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심이 확실한 기도 응답일 것입니다

5.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마가복음 11:23-24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 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심과 요한1서 5:15에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하느니라" 하신 말씀으로 볼 때 성도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뜻 이루어

어 드리는 목적으로 살았을 때 그 성도의 생각이 하나님과 일치하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과 같고 행동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할 때 그 성도의 기도는 응답이 보장 될 것입니다.

오리건 주의 어느 농장에 안주인 되는 여집사님이 있었는데 어느 주일 예배시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1:23-24의 본문으로 설교하실 때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하신 말씀에 기대를 가지고 귀가하여 농장의 집이 한가운데 약간 언덕진 곳에 있었는데 집에서 바다 쪽을 바라볼 때 집과 농토 경계선 사이에 낮은 돌산이 있었는데 창문 밖으로 농장을 두루 살펴보면 그 돌산이 가로 막혀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저녁노을에 붉게 충추는 바다 물결의 아름다움도 볼 수 없게 하는 돌산을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으로 서해인 태평양으로 던져 달라고 밤새도록 힘써 기도했는데 어느덧 새벽 여명이 밝아올 때 커튼을 쳐들고 돌산이 바다로 옮겨졌는가를 서둘러 살폈는데 웬걸 돌산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답니다. 바로 그 순간 여집사님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일성(一聲)은 "봐! 그럴 줄 알았어"였습니다. 이 여집사님이 밤새도록 그 돌산을 하나님께서 옮겨 주시라고, 꼭 옮겨 주셔야 한다고 "믿습니다"를 힘주어 반복하며 기도했었지만 그 집사님의 의식(意識)속에는 자기가 아무리 애써 기도해도 그 돌산은 그 자리에 그

냥 있을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불신앙(不信仰)적인 기도였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인의 불신앙(不信仰)은 현대 신도들에게서 쉽게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1:6-8에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하셨습니다.

6. 모두의 기쁨이 충만할 기도응답

본문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습니다. 기도 응답으로 성도가 치유(治癒)받아 건강이 회복 되었을 때 그 병자가 질병의 고통과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난 기쁨이 대단하겠지만 예수님께서도 그 병자의 죄를 대속하신 보람의 기쁨이 크실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신 성과로 흐뭇해하실 기쁨이 있으실 것이며 목자의 입장에서라도 지금 이 순간까지 능력의 장중에 불드시고 맡기신 양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신 응답에 나는 지금도 주님께 인정받는 중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고통에 시달리던 성도가 기도 응답으로 치유와 평안을 얻게 된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셨으니 목양기간 기도 응답의 결과는 모두의 기쁨이 충만해 지는 것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국 방송 설교		한국 신문 설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크리스천 투데이	7면 설교 / 동영상 · 인터넷신문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경복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국 방송 설교		라디오 미국 방송 설교	
COX TV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워싱턴DC.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7시 / 동영상 설교 제공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590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사카고 기독교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기독일보	5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AM1190 LA 미주 복음방송
	인터넷신문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AM1310 기본소리방송
크리스천 헤럴드	7면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월요일 오후 5시 / 하이라이 현시시간 오후 5시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기독일보는 기독교 세계관의 기초 위에 현 시대를 읽는 균형 잡힌 시각과 정론을 제시하는 교계 신문입니다

날마다 새로운 미디어의 지평을 선보일 기독일보를 기대해 주십시오.
 많은 기독교인들의 자부심, 꿈과 희망이 되는 미디어 기관이 되겠습니다.
 기독일보를 향한 관심과 사랑,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Tel. (213) 739-0403



2014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측 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호라이즌대학교
 학위취득 과정 및 학생모집 학과
 학사: 신학/ 상담학
 석사: 신학/ 목회학/ 상담학
 박사: 신학/ 상담학
 CA 주정부 교육국 BPPE 인가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520 S.La Fayette Park Pl. #411 LA, CA 90057
 Tel. (213) 736-5000 Fax. (213)736-5115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정회원 인준
 특전: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장학제도 있음
 학사과정: 성경학 학사(B.A. in Biblical Studies)
 석사과정: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Master of Art in Religion)
 2660 W.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미주대한신학대학
 개혁주의에 기초한 성경해석과 성경에 대한 종합적 사고능력 배양,
 교회 역사와 신학에 대한 구속사적 안목의 정립,
 말씀을 실천하는 신실한 주의 종 양성,
 세계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리더십의 준비.
 1325 12th Ave, Los Angeles, CA, 90019
 Tel. 323-731-9819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AMERICAN BAPTIST SEMINARY OF THE WEST, BERKELEY, CA
 L A Campus 목회학 박사과정
 (매년 1, 6월 통역제공, GTU 와 ATS 정회원)
 Dr. Hoi Chang Kim: (213) 268-9367
 hoichangkim@hanmail.net
 Dr. Hyo Shick Pai: drhyopai@gmail.com
ABSW President: Dr. Paul Martin www.absw.edu

통신신학 *한국상고사(한단고, 규원사학)
 - 신학(학사, 석사, 종교철학사전과정).
 - 한국상고사(교조신, 고구려, 백제, 신라, 발해) 전과정은 일제 식민사학 (단군신화)이 아닌 전통역사서 한단고, 규원사학 중심으로 학사, 석사, 박사 단계 완성 가능함.
 *본교는 캘리포니아 Education cord #94874 비영리종교법인(연방 501C3)에 의해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한국장로교단 미주대회에서 남녀 목사안수 가능함.
아메리칸 중앙대학교 중앙신학대학원 www.acus-edu.us
 mail: 379 Loa drive #301 L.A, CA 90017 paul Lim : 213-908-8986
 email : acus-edu@hotmail.com / acuslmjeongul@gmail.com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김연도 박사(D.P.M.) 총장 김근수 박사(M., Ph.D.)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ua.edu
 www.chongshinusua.edu

미주성결대학교
 한국성결교회 100년,
 미주성결교회 30년,
 미래를 책임지는 미주성결대학교!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 323-643-0302
 www.aeui.us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 성경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성경공부를 통해 영성과 인성교육을 하며, 골프를 통해 집중력과 체력향상을 시켜줍니다. 귀한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함께 가르치는 전문인에게 믿고 맡겨주십시오. 달라지는 자녀의 모습을 보게 되실 겁니다.

* 픽업가능

- 성인을 위한 무료 골프교실도 오픈합니다. (성경공부 필수)
- 문의 : 최 제이콥 Professional (310-598-0746)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최 제이콥>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ae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선교학 박사

담임목사 청빙



SAN FRANCISCO 근처에 위치한 콩코드 침례교회는 담임목사님 은퇴를 앞두고 후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 A. 미 남침례교단에서 인정하는 정규 미국신학대학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M.Div)
- B. 침례교단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이나 가입 가능하신 분 (타 교단에서 안 수 받은 목사인 경우 미남침례 신학대학원에서 6개월 정도 이수해야 하며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한다)
- C. 목회경력 10년 이상이신 분(담임목사 경력 3년 이상 포함)
- D. 영어 한국어를 자유로이 사용하시는 분
- E.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제출서류>

- A. 본인 이력서(본인 및 가족사진 동봉)
- B.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목사 안수 증명서
- C. 자기 소개서 : 본인 및 사모님(신앙간증, 사회경력, 사역경력, 목회비전)
- D. 추천서 2부(동봉)
- E. 최근 6개월내 설교 DVD 2편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은 교회 website www.ckbch.org 에서 다운 받으십시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제출마감 : 2014년 6월 30일
제출처 : P.O.Box 3073 SAN RAMON CA 94583 / Att : Hong Ki Hak
문의 : 청빙 위원장 홍기학 안수집사(ckbch2014@yahoo.com)

Concord Korean Baptist Church
5000 Hiller Lane, Martinez, CA 94553 / www.ckbch.org

담임 목사 청빙 공고

뉴욕 새교회는 본 교회 제 3대 담임 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 합니다.

I. 지원 자격

1.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M.Div) 목회자중 미국 개혁교회 교단 (The Reformed Church in America: RCA) 소속이거나 가입이 가능한 분
2. 5년 이상 목회 경력이 있고 이민 목회와 2세 교육에 사명감과 비전을 갖고신 분
3. 미국 시민권 또는 영주권자이거나 미국 체류에 결격 사유가 없는 분

II. 제출 서류

1. 이력서 (소정 양식)
2. 자기 소개서 (소정 양식)
3. 목회 계획서 (소정 양식)
4. 최종 신학교 졸업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5. 최근 설교 DVD (2개) 나 또는 설교를 들을수 있는 home page 주소

III. 제출 마감일: 2014년 5월 31일

IV. 제출처: Pastoral Search Committee,
The New Church of the Greater New York,
1 Willow Street, Roslyn Heights, NY 11577
· 문의: 청빙위원장 (황달연 장로) :
917-576-3921, dalehwang100@gmail.com

V. 기타:

1. 서류는 보완유지 및 분실예방을 위하여 등기 우편 (FedEx, UPS) 으roman 받음
2. 제출된 서류는 비밀을 보장하며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해당자에 한하여 추가 서류를 요청할수 있음
4. 소정 양식은 뉴욕 새교회의 home page (www.newchurchny.org) 에서 볼수있음.

뉴욕 새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그리스도의 노예



민종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 즉 속량(贖良)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은 죄 아래 팔린, 죄 아래서 종노릇하는 인간을 사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핏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인 (master)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악랄한 주인인 사탄 아래에 있던 자를 자비로운 주인이신 예수 아래로 이동시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선언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보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 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롬 6:17-18).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사람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됩니다. 이제는 자유를 얻어 선한 주인이신 예수님을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주인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사랑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분은 이제 죄에 찌든 종인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시민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종을 백성으로 만들고, 양자의 영을 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녀들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 곧 어린양의 신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구원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하고 해방을 누리며 의의 종이 되라고 합니다. "주여 주여" 말로만 하는 종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종이여야 합니다(마 7:21). 성경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 기록함에 이르러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원 이후의 열매 맺는 삶도 여전히 구원만큼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룰라"(골 2:12)고 성경은 명령합니다. 나무와 열매는 나누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슬림화 전략



김지성 목사
글로벌선교교회

평단의 탐험장비를 가지고도 실패한 남극점 탐험을 끝내 성공시키고야 말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문센의 남극점 탐험 성공의 결정적 이유를 '슬림화 전략'에서 찾고 있습니다. 아문센은 탐험 도중 아무리 귀한 물건이라 해도 탐험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한 물건은 무조건 버렸습니다. 일상생활과 탐험은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신념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행자나 탐험가나 여정에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짐을 챙깁니다. 짐이 여정을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기대감에서 그러합니다. 그러나 그 짐이 여정을 힘들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삶도 똑같습니다. 삶이 여행이나 탐험같은 여정으로 많이 묘사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인생의 여정을 편안하게 이루고 싶은 생각에

우리는 많은 것을 챙깁니다. 우리가 챙기는 것들이 인생을 좀더 우아하고 편리하게 만들어 줄 것이라는 검증되지 않은 확신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생 여정을 힘들게 만들거나 실패하도록 만드는 주범이 우리가 챙겼던 바로 그것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함참 후에 깨닫는 경우가 비일비재 합니다.

인생의 짐을 얼마나 가볍게 만드는가도 성패여부의 한몫을 거둡니다. 그래서 '챙기는 훈련'보다 '버리는 훈련'을 쌓아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챙기는 훈련'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은 '버리는 훈련'인데 말입니다. '버리는 훈련'이 안되면 인생의 목표점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부수적인 것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결국 짐을 챙기다가 정작 목표점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불행한 결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살다보니 버릴 줄 안다는 것은 달인의 경지에 올라야만 가능함을 깨닫게 됩니다. 스승과도 같은 어떤 목회자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예전에는 연기를 구하는 기도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버릴 수 있는 용기를 구하는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제대로 아는 사람은 '슬림화 전략'을 택합니다. 버릴 수 있는한 버리는 그 슬림화 전략 말입니다.

즉석 설교



엄영민 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교에 대해서 만큼은 늘 겸손하고 늘 진지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가끔씩 전혀 무방비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지난주 중에도 한 번 그런 일이 있었다. 새벽기도를 나와 앉아있는데 시간이 돼도 설교하실 목사님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다. 그럴 경우 목회자 간에는 누군든지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우선 올라간다는 무언의 약속이 되어 있다.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다 조금 늦게라도 설교자가 오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야말로 즉석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다. 내 모습을 보니 새벽이라 거무튀튀한 잠바를 걸치고 얼굴도 제대로 안씻은 상황이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갔다. 시간이 되어 찬송을 한 곡 부르고 또 두 곡까지 불렀는데도 설교하실 목사님이 보이지 않았다. 설교

는 해야 하는데 설교할 본문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몰라서 앉아계신 성도들에게 어느 곳이나 물어보아야 하는 굴욕도 당했다. 그리곤 본문을 읽었다.

스무 시간 걸려 준비해도 모자란 설교를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설교를 준비가 되어야 하는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었다. 고개에도 마침 말씀이 동굴에 숨어있던 다행이 그 사실을 모른채로 발을 가리우기 위해 거기에 들어온 사울을 단숨에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살그머니 옷자락만 베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느낀 감동을 그대로 나누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 했다. 설교자로서는 전혀 준비 안된 뺑뺑 설교였다. 그래도 듣는 성도들의 표정은 진지했다. 사실은 읽기만 해도 은혜로운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가끔 일주일내내 땀흘려 준비한 설교도 죽을 쑤는 것에 비하면 약간의 놀라움.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 그게 바로 말씀의 능력이다. 준비를 많이 했든 그렇지 않든 말씀 본래의 능력이 전해지면 설교는 그것으로 족한 것임을 새삼 느꼈다. 또 설교자가 좀 준비가 부족해도 듣는 분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면 얼마든지 은혜로울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새삼 느꼈다. 그렇다 해도 즉석 설교는 앞으로도 가끔씩 사양이다.



혈액 해독 / 기력회복 천연 항염, 혈관 탄력 심장, 뇌 혈전용해 뼈, 골수 영양공급

권장소비자가격: \$184/병

눈으로 직접 확인 하세요!

병치료와 장수의 시작은 피를 맑게 하여 알칼리화 시키는데 있습니다



셀라케어 제품은 6년 경작후 1년 휴지기를 지키면서 유기농으로 재배한 작물을 엄선하여 우리몸에 흡수가 잘 되는 알칼리성으로 만듭니다.

많은 영양제중 M3만이 알칼리 테스트(PH Test)에서 최고 품질 보라색으로 변합니다

신비한기적의영양제 M3[®] 세트

- 좋은 흙에서 나온 식물성 원료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 체내 흡수가 빠르므로 복용 효과가 높습니다. (1-3일 내)
- 혈액을 깨끗하게 하고 혈액 내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함으로서 무슨 병이든지 큰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 세계 특허(특허번호 51281391) 공법으로 제조되어서 복용 후 체내 흡수율이 다른 제품에 비해 월등히 높습니다. (흡수율 92-96%)
- 셀라케어의 모든 제품은 남녀노소 모두 복용가능합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영양제 - 셀라케어
SELLA CARE[®]

셀라케어 효능사례

무슨 병에 걸렸는지 큰 효과를 줄수 있는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발작, 자폐증, 무감각증	시력장애인으로 태어나 무감각증으로 폐인 상태, 셀라케어 복용 후 완치되어 등산도 다닐 정도입니다. 방세환(20세, 원주) 010-5599-2633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에서 간으로 전이된 상태, 2달 복용후 정상으로 회복됨
위암 3기	카이저 병원에서 수술을 권했는데 M3셋트를 3개월 먹고 나서 암수치 1,360으로 정상으로 돌아와서 수술을 하지 않게 되었음. Mr.박(72세, 엘에이) 213-268-8381
심한 부정맥, 해소, 천식	심장수술을 받은 분으로 3일 복용 후 상태가 많이 호전됐음, 30년이상 기관지 천식과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했으나, 셀라케어 복용 후 정상으로 돌아옴. 양호연(42세, 엘에이) 213-500-4471
유방암 완치 후 모유수유	오른쪽 유방암으로 간, 폐, 골수까지 전이된 상태에서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M3셋트를 주스에 같이 복용 후 심한 호전 반응 겪고 완치됨. 그후 4년뒤 늦둥이를 출산하여 지금 모유수유를 할 정도로 완쾌. 양호연(42세, 엘에이) 213-500-4471
간질과 약물중독	16년동안 하루에 몇번씩 간질을하여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는데, 지금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함, 간질중독도 호전됨. 복용 후 190kg가 125kg로 되고 시력, 피부, 머리카락 좋아짐. 오윤희(26세, CA가디나) 213-604-1992
직장암, 대장암 말기	처음에 수술이 불가능하였으나, 복용 후 대장속에 있었던 숙변이 피와 함께 쏟아지면서 몸에 있던 큰 혹들이 줄어들며, 복용 후 6개월 후에는 깨끗하게 치료됨. 이순남(77세, 엘에이) 323-533-0624
심한 아토피	6년동안 심한 아토피로 고생이 심했는데 복용 1개월 후 부터 피부가 깨끗해지며 잠도 잘 자고 키도 많이 컸고 정신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었음. 에스터 양(10세, 산타모니카) 213-215-6991
대장암	대장암 초기판정을 받았고 병원 치료를 받던 중 M3셋트를 먹기 시작, 수술하지 않고 복용 석달 후 완치 되었음. 한국 010-7928-7986
비만, 우울증, 아노증	어려서부터 심한 비만으로 11세에 체중이 190파운드 였으나 셀라케어 복용 2달후부터 살이 빠지기 시작 하면서 현재는 130파운드로 유지됨, 우울증, 아노증이 깨끗하게 치유 되었음. 샘 양(15세, 엘에이) 213-219-7746
심한 당뇨, 고혈압	30년전 고혈압과 당뇨로 매일 약을 먹던 중 M3셋트 복용 후 4개월이 지나면서 혈압과 당뇨가 정상으로 되었고 절단전전의 다리, 온몸의 검은 피부가 회복되었음. 오일동(52세, 가디나) 213-258-5321
심한 알러지, 우울증, 불면증, 녹내장	코막힘과 콧물로 밤을 새우는 고통 중 M3셋트 복용3일 후 완치, 심한 심장 압박과 하지정맥까지도 치유됨. 정수지(61세, 베버리 힐) 310-800-8242
심장병, 담석, 전립선	10년 동안 고혈압과 밤마다 잦은 빈뇨와 다리가 저려서 고생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약성 빈혈과 혈압이 정상으로 되고 담석으로 인한 고통도 사라졌습니다. 마사루(58세, 부산)
심한관절염, 변비, 생리통	손가락이 심하게 아파 소염 진통제로도 잘 안들었으나 셀라케어로 통증이 가셨고 변비도 해결 되었으며, 큰 딸의 생리통과 우울증도 사라졌음. 황정희(39세, 팔로스버디스)
중풍마비, 당뇨, 고혈압	15년 동안의 고혈압, 당뇨를 딸의 권유로 셀라케어 복용 후 7개월 만에 고혈압, 당뇨, 왼쪽 마비도 정상 회복됨. 민현재(65세, 방배동)
등 수술후 심한 손떨림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등 수술 후 8년 동안 심한 손 떨림으로 고생중, 복용 일주일 후 부터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손 떨림이 없어지고 안정됨. 박성섭(63세, CA 토렌스)
자폐증	가족과 의사 소통이 되지 않으며 손발이 항상 차고 손 발끝이 너무 같이 딱딱 했는데 복용 열흘 후 부터 손발이 따뜻하고 부드러워 졌으며, 가족과 의사 소통이 가능 해지고 상태 좋아짐. 정대진(16세, 엘에이)
혜장암 말기	60세 중년에 가장 힘들다는 혜장암 말기로 병원에서 두 달 시한부 선고를 받고 M3셋트를 복용하고 2개월이 지나면서 부터 기적적으로 혜장의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왔음. 피터 리(65세, 엘에이)
폐암 말기	50세에 찾아 온 암으로 고통 받던 중 복용한지 한달 20일 후 부터 암 수치가 3.5cm에서 1.2cm로 작아지면서 좋아지기 시작하여 5개월 후에는 암 크기가 30%로 작아졌음. 이정수(51세, 서울)
자가 면역 질환	희귀병으로 부종, 부분적인 감각 상실, 지속적인 증가, 결국은 폐가 굳어지는 불치병으로 M3복용 3일 후 피검사 결과 혈액수치 정상으로 나온 후 한달 복용 후 모두 정상으로 돌아옴. 미세스 략(뉴저지)
모유 아주적음, 심한부종	모유수유가 안되어 애를 먹었는데, 셀라케어 복용 후 모유가 더 잘 나오며 심했던 부종이 눈에 띄게 좋아졌으며, 신생아기도 번을 잘 보고 잘 자고 푹들해졌음. 이은영(32세, 세리토스)
혈액투석	1주일에 3번씩 2년 6개월동안 혈액투석 해 왔는데, 2달 복용 후 혈액투석 횟수가 점점 줄었고, 지금은 혈액투석을 아니함. 장영순(53세, 한국 서울)
중풍으로 인한 마비	심한 중풍 후유증으로 고생하며 인생 말년에 찾아온 병으로 비관하며 졸다는 말을 찾던 중 M3셋트를 알게되어 복용 한지 3개월 후부터 서서히 중풍으로 인한 마비가 풀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있음. 김정훈(76세, 한국 대구)
임파선암	2년전 임파선 암 수술했음, 셀라케어 복용 후 한 달 20일만에 왼쪽 가슴 유두에서 피고름이 나왔으며, 지금은 키모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회복 됨. 조인숙(53세, 시카고)
갑상선암과 심한 관절염	13년동안 심한 관절염으로 신문 한장도 옮기기 어려웠고 밤에는 불면증으로 고생, 셀라케어 한달 복용 후부터 심했던 통증이 차차 가라 갔고 갑상선도 정상으로 회복 되었음. 김정연(39세, 다이아몬드 바)
전립선암과 부정맥	소변이 힘들고 밤에는 7번씩 소변보았으며, 심한 부정맥으로 고생 하였음, 복용 2달만에 밤에 화장실 가지 않게 되고 혈액 검사 때마다 혈관 찾기가 힘들었으나 지금은 혈액 흐름이 원활하여 계속 복용하고 있음. 필립 남(72세, 벨리)
파킨스 병	3일 복용 후 몸이 가벼워지며 계속 복용하면서 자유로운 외출과 친양 사역자로 다시 일할 수 있을 정도로 되어 지금은 외출을 두려워하지 않게 됨. 브라이언 김(70세, 버지니아)
반신불수	목사님 이었고 5번의 뇌수술 후 반신불수가 되었는데, 복용 2개월만에 지팡이도 버리고 걸었다고 있음. 왼쪽 마비도 많이 풀렸음. 최정석(50세, 엘에이)

건강과 성경 이야기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첫번째 시간으로 요즘 한인사회에서 화제가 되고있는 기적의 영양제 M3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용하신 많은 분들이 M3영양제를 왜 기적의 영양제라고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날까지 시련에서는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건강하면 80이라고 합니다. 또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남의 신 인생을 건강하게 사시다 가지지 않겠습니까?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였습니다. 우선 건강하시려면 우리의 몸이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선조들은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라고하였고 요즘 과학자들도 흙과 사람의 원소가 신비하게 같다고들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고 합니다.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은 산소, 수소, 질소, 탄소와 함께 황, 인, 칼슘, 인, 유황, 염소, 불소, 마그네슘 등등등 약 80여가지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칼슘은 다 아시는 것과 같이 뼈와 치아 등등에 관여하고 인은 모발에 규소는 손톱에 염소는 간장 쓸개 콩팥의 청소제라고 할 수 있고 마그네슘은 혈액 등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손 발이 저리신 분들은 마그네슘의 부족 현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면 그날로 손발저린 것이 없어집니다. 마그네슘은 또한 혈액을 잘 움직일수 있게 해 주므로 심장병 간질 손발 저림등에 좋고 혈액순환에 아주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그네슘을 먹을 수 있었습니까? 흙을 파먹을수도 없는 것이고, 방법은 마그네슘을 빨아들이는 식품을 먹으면 되는 데 요즘은 공해와 산성비 등으로 인하여 1980년도에 한 단판 먹어도 되었던 시금치를 지금은 약 20단을 먹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도 불가능해보입니다만 다행이도 미국과 몇 나라에서는 식물에서 이러한 물질을 분리수거할 수 있는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식물에서 분리수거 하여 종류별로 자루에 넣어두었다가 필요할 때 필요한 양 만큼

무료건강상담 문의 213-435-9600

셀라케어 제품은 유태인 코셔인증의 고급 유기농 원료로 만든 미국제품으로 미국 FDA인증의 GMP생산물입니다. www.sellacare.com

본사(LA)	213.435.9600	뉴욕	201.953.0022	LA 사랑방	213.351.9552	뉴서울 호텔(팔달)	714.537.6619
오렌지카운티	714.795.1540	버지니아	703.684.9199	가든그로브 건강마을	714.636.2588	LA벌론 마틴약국	213.382.9718
시온약국	213.382.6485	시애틀	206.331.6655	시온마켓 내 시온헬스	714.730.2707	LA벌론 갤러리아마켓약국	213.388.4100
LA 아드모아약국	213.385.2135	LA 다운타운	213.798.3333	세크라멘토,아리조나	602.332.6492	글렌데일 한국마켓 약국	818.637.7708
LA 한국마켓약국	323.464.3925	밸리	818.642.8223	센루이스, 캔사스	314.570.9629	늘웁 H 마트 리빙헬스	562.402.8859
LA 베스트약국	213.385.9926	밸리 소망 약국	818.832.2757	하와이(생약촌)	808.947.8086	다이아몬드바 JJ 약국	909.595.4003
우리약국	213.384.6323	얼바인	949.330.9009	하와이 총판	808.359.3376	H 마트 내 H 헬스(다이아몬드바)	909.594.6370
예스약국	323.733.7788	랜초쿠카몽가	909.987.9500	LA내처영양센터	213.739.8874	H 마트 내 H 헬스(어바인)	949.251.0193
올림픽갤러리아마켓약국	323.733.7200	에나하임	714.469.5809	플러튼 내처영양센터	714.690.0120	그린마켓 내 그린랜드 건강헬스	626.839.2868
부에나파 종로의료기구	714.530.8275	로렌하이츠	626.912.5727	세리토스 그린라이프	562.402.6970	가주건강종합백화점	213.388.0091
가디나	714.351.0440	LA시온마켓머슨약국	213.739.3030	플러튼 베스트케어약국	714.670.7979	캐나다	714.636.2588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요15:7)

월드비전, 동성결혼자 입사 허용 발표후 많은 후원자 잃어

리처드 스티스 “많은 어린이가 후원자 잃어 가슴 아프다”

미국 월드비전 리처드 스티스(Richard Stearns) 대표는 동성결혼자의 고용을 허가하기로 정책을 바꿨다고 발표한 이후, 많은 어린이가 후원자를 잃게 되었다며 깊은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보도했다.

종교지도자들과 후원자들로부터 월드비전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들은 스티스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이사회가 이 결정을 뒤집고 “결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며,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라는 이 단체의 성서적 핵심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틀 만에 결정을 번복한 사대로 성서적 권위와 가치를 중시한다고 표명한 월드비전의 신뢰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철회 입장을 표명한 26일 이후에도, 성서적 결혼을 지지하는 후원자

들의 후원 취소가 여전히 잇따르고 있다. 후원자의 입장에서 월드비전의 결정이 신념을 따른 것인지 후원자를 잃지 않기 위한 체제인지 확인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스티스는 “지난 며칠 동안 개인적으로 고통스러웠다. 특별히 미국 월드비전이 성경적 권위에 대한 약속을 저버린 이번 정책 변화를 지켜본 미국 전역의 많은 친구들, 파트너들에게 혼란을 겪어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다”고 말했다. 24일 발표로 어린이 후원을 취소한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정확한 집계 가 나오진 않았으나, 스티스는 많은 후원자가 월드비전 이사회의 결정에 항의하며 지원을 취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가 돕는 어린이들이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다는 사실이 가슴 아프

다. 재정적인 여파가 어떨지는 잘 모르나 우리 결정은 돈이나 수입에 좌우되지 않는다. 우리는 옳은 바를 행하고자 한다. 우리의 핵심 가치에 부합하고자 하며, 월드비전의 친구들과 종교지도자들의 바른 의견과 조언에 응답하고자 한다”고 했다. 복음주의자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의 러셀 무어 회장과 미국 최대 오순절 교회인 하나님의 성회(Assemblies of God)의 조지 우드 총감독은 이 정책 변화를 비난했다. 스티스는 미국복음주의교회재정책임위원회(ECFA·Evangelical council for Financial Accountability), 국제종교방송인협회(National Religious Broadcasters association)로부

터도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정책을 바꾼 것이 실수였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했으며, 스티스는 이사회의 “부족한 판단력”에 대해 파트너들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티스는 24일 동성결혼자를 고용하기로 한 정책을 발표한 이후 다양한 사람으로부터 후원을 약속받았으나, 월드비전은 곧 이러한 정책 변화가 크리스천 사이의 분열을 일으켰음을 깨닫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교단이나 교회의 소수자 의견을 따를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월드비전은 직원에게 성적 영역 뿐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 크리스천의 높은 품행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사회는 26일 성명서

를 통해 결혼 전 순결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성서적 언약인 결혼 내에서의 성실을 요구하는 월드비전의 오랜 정책으로 회귀했다고 밝혔다. 이사회의 결정에 이어, 스티스는 월드비전의 개인 후원자, 교회 파트너들이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돕고 재난현장에 구호를 제공하는 이 단체의 사명을 계속 후원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역의 손길이 매년 1억 명의 사람들에게 닿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빈곤으로 고난받는 자들이며, 재난, 전쟁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시리아 난민 수용소에서 일하며, 하이엔 태풍 이후 현장을 재건하고 있다. 우리는 전세계 수많은 어린이와 소녀들을 성매매로부터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디 한 기자

새로운 복음주의 세대,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

세속 문화 거부하고 진지한 신앙 추구하는 정체성 가져

복음주의 교인들은 점차 보수주의자도 진보주의자도 아닌 ‘반문화적’ 세대의 특징을 나타내게 될 것이며, 이는 복음주의 커뮤니티에 긍정적인 변화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미국 남침례교(SBC)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 회장인 러셀 무어(Russell Moore) 목사가 견해를 밝혔다.

무어 목사는 최근 열린 윤리와공공정책센터 페이스 앵글 포럼(Ethics and Public Policy Center's Faith Angle Forum)에서 “요즈음의 젊은

복음주의 교인들은 기독교 우파의 스타일과 방법론을 거부하며 진보주의자가 되기를 택하지도 않는다. 대신 이들은 복음과 연관되어 있는 반문화적(counter-cultural) 메시지들을 수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이전 세대의 복음주의 교인들은 자신들을 “소수의 진보주의 엘리트들에 대항하는 도덕적 다수들”이라고 보았지만, 새로운 세대는 “세상 문화에 속하지 않는 낯선고 다른(freakish and strange) 존재들”

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 무어 목사는 “이는 이제 복음주의 교인들이 자신들이 미국의 다수라는 환상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변화는 복음과 교회를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오늘날 미국을 비롯한 서구에서는 문화 전쟁이 정점에 이르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무어 목사는 이러한 환경 가운데서 복음주의 교인들은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았다고 본다. 그는 “과거

에는 교회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한 필수적 요소였지만, 오늘날에는 교회에만 나가고 싶은 신앙과는 거리가 먼 ‘명목상의 기독교인’은 점차 줄어들고 있다”며, “세속화되어 가는 사회로 진입하면서 교회들은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욱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고 평가했다.

복음주의 교인들이 얻은 ‘반문화적’ 정체성은 이들이 문화 전쟁에서 물러나게 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무어 목사는 강조했다. 그 예로 젊은 복음주의 교인들은 과거 세대처럼 특정 정치인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등의 정치적 세력을 형성하는 일에는 덜 관여하지만, 보다 넓은 범위의 정치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의 관심사는 생명과 결혼에서부터 인신매매, 고아 문제, 가정 폭력, 환경



발레 중인 러셀 무어 목사.

에까지 폭넓게 자리 잡고 있다.

한편, 외부에서 보기에 새롭게 나타난 이 복음주의 교인들의 모습은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무어 목사는 말했다. “이들은 문신이나 코걸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을 보고 진보주의자라고 추측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은 신학적으로는 자신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에 가깝다”고 그는 설명했다.

한편, 외부에서 보기에 새롭게 나타난 이 복음주의 교인들의 모습은 혼돈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무어 목사는 말했다. “이들은 문신이나 코걸이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들을 보고 진보주의자라고 추측하게 된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들은 신학적으로는 자신들의 부모나 조부모 세대에 가깝다”고 그는 설명했다.

무어 박사는 “새로운 복음주의 교인들은 자신들의 ‘다름’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볼 수 있게 할 것이다”고 평가했다. 그는 “기독교를 보다 평범한 것으로 만들어서 ‘상품성 있게’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며, “기독교가 세계의 종교가 된 것은 그리스도의 주장이 괴이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로마 시대였다”고 강조했다.

순현정 기자

마이스타일리스트 미용실

웨스턴+3가에 있는 웨스턴 빌리지 센터로 이전했습니다

남자 헤어컷 \$8

매주 목요일에는 남자 헤어컷을 \$8에 해드립니다. 미리 예약하시는 분에만함. *헤어 컬러와 릿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밤 10시까지 영업 (퇴근후 찾아주세요)

편리한 위치- 넓은 지하 주차장 **웨스턴+3가 코너**

새로운 장소에서 보다 더 편리하게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헤어 칼라

\$30 up \$10 up

* 단, 칼라만 하시면 \$30.00

매직 스테레이트

\$100 up

마이스타일 미용실은 서울 청담동의 최신 한국 유행 트렌드와 베버리힐스의 미국 유행 트렌드가 결합되어 당신에게 꼭 맞는 헤어스타일을 찾아드립니다.

mystylist

301 S. Western Ave. Suite 110 L.A., CA 90020

영업시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00 AM - 10:00 PM

Tel: 213-739-1022

미국 종교 자유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1면으로부터 계속 이번 소송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연방대법원 판사들의 성향이다. 현 연방대법원은 보수 4명, 진보 4명, 중도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 1명의 중도와 스윙보터가 매우 중시된다. 또 이번 소송에서는 판사들의 정치적 색채에 더해 이들의 종교성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현 연방대법원은 역사상 최초로 개신교인 판사가 한 명도 없는 것이 특징이지만 가톨릭 교인이 6명, 유대인이 3명이다. 가톨릭은 공식적으로 낙태와 피임에 반대하고 있으며 유대교도 이와 일맥상통하는 입장을 갖고 있기에 종교적 이유로 낙태와 피임을 반대한다는 하비로비의 입장을 판사들이 이해하는 데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역시 문제는 고용주의 종교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경영에도 반영되어야 하는지 여부이며 기업이 종교적 이유를 내걸고 소송을 하는 것이니만큼 기업의 종교성이라는 그 근거와 주체가 무엇인가를 밝히는 데에 초점이 있다.

스윙보터로 꼽히는 앤소니 케네디 대법관은 보건복지부를 향해 “영리 기업은 주주와 고용주의 종교적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보는가?”라고 물었으며 소니아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하비로비를 향해 “영리 기업이 어떻게 종교적 신념을 구현할 수 있는가? 이 종교는 주주의 종교인가? 직원들의 종교인가? 기업이 어느 정도까지 종교에 헌신적이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종교와 영리 기업에 대한 관점을

넘어 종교와 의료 행위에 대한 질문도 오고 갔다. 미국 내에서는 이미 종교적 이유의 수혈 거부, 예방접종 거부, 키모 치료 거부 등 종교가 의료 행위와 마찰을 빚은 전례가 많다.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만약 종교적 이유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 행위에 대한 보증을 반대하는 고용주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즉, 고용주가 종교적 이유로 낙태에 관한 보증을 거부할 수 있다면, 다른 의료 행위에 대해서도 거부할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이다. 소토마이어 대법관은 의료 행위를 예로 들었다. 미국 내에서 자주 다루져 온 수혈 문제는 여호와의증인들이 거부하며, 의무적 예방접종은 미국 내 3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종교적 이유의 면제를 허락하고 있는 사안이다. 돼지에서 추출한 콜라겐 시술은 무슬림들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더 나아가 “이런 주장에 따르면, 고용주가 종교적 신념에 의거해 성차별금지법, 최저임금법, 어린이노동법, 가족관련휴가법 등도 거부할 수 있지 않은가?”라고 묻기도 했다.

한편, 이 소송에 대한 판결은 오는 6월 중순에 발표될 예정이며 연방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 오바마케어의 종교 면제 조항의 범위, 영리 기업의 종교 자유 여부, 종교와 의료 행위 간 우선권 논쟁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송의 당사자인 하비로비는 이번 소송에서 패할시, 무려 4억 달러에 달하는 벌금에 처해진다. 김준형 기자

나이지리아, 이슬람 세력의 박해로 나라 혼란 외

파키스탄의 한 공립대학이 법령을 거부하며, 비무슬림들에게 국가적으로 허용된 일자리를 제공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한다. 2009년 5월 정부는 소수 종교인들에게 5%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주민 대다수가 크리스천인 펀잡주(Punjab)에 있는 사르고다(Sargodha) 대학은 2010년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수백명의 사람들을 고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비무슬림들을 고용하지 않는 행정적 조치들을 하고 있다. 이 법령은 종교적 약자들을 보호하고 정부에서 일하기 원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을 줄이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주 공무원들이 법의 시행에 있어 주된 걸림돌이다. 차우드리 무스타크 길(Chaudhry Mushtaq Gill)은 파키스탄 무슬림 연맹(league)에 소속된 크리스천 정치가다. 그는 2012년 9월 사르고다 대학을 고소했다. 대학은 패소했고 검찰은 2013년 3월 다음의 사항들을 명령했다.

“사르고다 대학은 소수 종교인들을 위해 규정된 5% 할당제를 어기고, 2010년 3월 이래로 다양한 형태의 고용광고를 해왔다. 이것은 정부가 제정한 일자리 공급 정책을 위반하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시행되지 않고 있다. 대학에 의해 제출된 기록을 보면 2010년 이래로 고용된 111명의 크리스천 중 102명은 길거리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 그 외 9명은 사무원이나 정원사로, 또한 가게 점원과 실험 참가자로서 일하고 있다. 거리 청소부는 전통적으로 인도 카스트 제도에서 비천한 직업으로 여겨지며, 오직 천민들에게 해당되는 직업군이다. 크리스천은 대부분 천민 계급 출신이다. 그래서 그들은 공격적으로나 사적으로 거리 청소와 같은 단순직업을 하도록 요구 받는다.

기도제목
 1. 파키스탄의 천대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비록 사회적 천민에 속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귀중히 여기심을 잊지 않도록.
 2. 무슬림이 아닌 이들에게도 양질의 일자

리를 제공해야 하는 법률이 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는 공무원들이 정해진 법률을 잘 시행하도록, 종교적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이지리아의 세 마을에서 발생한 대학살로 인한 희생자 수가 150명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카두나(Kaduna) 남부 지방에 위치한 카우라(Kaura) 지방 자치 부의장이 전했다.

용의자로 추정되는 풀라니족의 유목민들은 지난 14일(금요일) 저녁에 크리스천이 주를 이루는 세 마을(Ugwir Sankwai, Ungwan Gata, Chenshyi)을 습격했다. 240여 가구와 3 교회(복음주의 교회 한 곳과 성공회 두 곳)가 불에 탔고 복음주의교회(ECWA, Evangelical Church Winning All) 목사의 아내와 세 자녀를 비롯한 리키타 리쿠(Likita Riku) 목사가 불에 탄 채 발견됐다. 대학살이 발생한 지 3일이 지난 후인 18일 화요일에 이 지역을 방문하여 보니, 생존자들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사건이 발생한 마을에서는 주로 농부와 소규모 상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희생자들은 초등학교에서 잠을 자고 근처에 있는 친척 집으로 대피했다. 살아남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울면서 자신들의 부모와 형제, 자매, 친구들을 찾고 있다.

나이지리아 중부에서 풀라니족 유목민들에 의한 공격은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수준에 다다랐다. 지난 2월에는 나이지리아 동부 국경에서 무장한 풀라니족에 의해 35명이 죽고 가톨릭교회가 공격을 받았다.

기도제목
 1. 보코하람의 공격이 국경 지역에서 계속될 뿐만 아니라 중부 지역에서도 이슬람 세력들에 의한 박해가 지속되고 있는 등, 나라가 전체적으로 혼란한 가운데 있다. 박해를 견뎌낼 힘을 얻도록.
 2. 남은 희생자들을 위해. 가장과 아버지를 잃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참 아버지가 되시도록.

/오픈도어선교회 제공

“내 삶이 산산조각 나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케냐 몸바사의 한 미망인, 교회 사역 지속할 수 있도록 기도 요청

“아무리 내 삶이 산산조각이 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어떤 길도 없는 것 같아도 길이 있음을 신뢰합니다.”



클라리스 메솔

케냐 몸바사(Mombasa)의 과부 클라리스 메솔(Charis Mathole)이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다. 클라리스는 이 믿음으로 인해 자신의 남편이자 리디머가스펠 교회의 목사인 찰스 메솔(Charles Mathole)이 무자비하게 살해됐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하나님에게 물었지만, 그 어떤 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평화롭습니다.” 침착한 목소리로 클라리스는 말한다.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이제 혼자서 교회사역이라는 크나큰 일을 해나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그녀는 오늘도 하나님에게 힘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한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찰스와 클라리스는 믿음이 없었다. 하지, 결혼 후에 둘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그들의 사랑을 점점 키워나갔다. 찰스와 클라리스는 다니던 교회의 예배팀에서 섬기고 있었는데 찰스는 전도사를 거쳐 2008년에 목사가 되었다. 클라리스가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섬기는 동안 찰스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비전을 갖게 되었다.

교회는 처음부터 적대적인 지역 무슬림으로부터 극심한 반대에 부딪혔다. 교회 성도들은 폭행, 폭언 등으로부터 끝없이 위협을 받았다. 밤에는 교회 시설 용품들이 도난당하거나 파손되었고, 찬양하는 도중 교회 안으로 돌들이 날아오기도 했다.

2011년 찰스와 클라리스는 교회 위치를 옮겼으나, 비슷한 형태의 반대가 지속됐다. 지방 정부와 경찰서에는 ‘치안 방해’라는 이유로 무슬림들의 공식적인 항의가 계속해서 불붙듯이 이루어졌다. 다행히도 케냐의 법이 예배의 자유를 보장해주었기 때문에 무사할 수 있었다. 교회에 대한 박해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수는 꾸준히 늘어 주일학교 학생의 수가 200명도 넘었다.

찰스는 2013년 10월 19일 토요일 밤, 교회에서 성경을 읽다 총에 맞아 죽었다. 찰스와 클라리스는 늦은 밤까지 전도활동을 하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너무 바빠서 기도를 드리지 못한 것이 마음에 걸렸던 찰스는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날 한 성도가 목사님을 찾는 전화에 잠에서 깬 클라리스는 찰스에게 전화를 해보았지만 계속 받지 않자 점점 불안감이 휩싸였다. 오래 지나지 않아 같은 교회를 섬기던 목사와 그의 아내, 성도 두 명이 클라리스의 집으로 와 그녀에게 찰스가 교

회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고, 안타깝게도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례식을 치르고 난 후에야 클라리스는 슬프고 아프지만, 남편의 죽음을 인정하게 되었고 비통해하고 있는 성도들이 이끌어야 한다는 책임감 앞에 서게 되었다. 특히 클라리스는 아이를 가지고 싶었지만, 이제 더는 이를 수 없는 꿈이 된 것에 큰 슬픔을 느꼈다. 클라리스와 가장 가까워서 고통을 함께 나눌 가족이 없이 혼자 남겨졌다는 것이 너무나도 슬펐다. 하지만 대신 클라리스는 교회 식구들을 기도와 애정으로 감싸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을 찬양했다. “우리는 아직도 너무나 아픕니다. 아직도 너무나도 울고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며 계속해서 함께 해주실 것을 알기에 하나님의 사역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몸바사의 사회 정치적인 분위기상 교회 사역을 계속 해나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찰스 메솔을 살해한 범인은 올해 극단주의 이슬람 단체의 이맘 이브리함 로고(Ibriham Rogo) 총격 사건으로 인한 폭동 현장에서 목격되는 등 계속해서 범행을 일삼고 있다. 테러리스트들이 수많은 인질을 붙잡고 이슬람 교리를 강요하고, 이교도를 죽였던 나이로비 웨스트게이트 쇼핑몰 습격의 여파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케냐 경찰들은 알 사하바(al-Shabaab)이 메솔 목사 살해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간주하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하지만 몸바사에서 사역하고 있는 목사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협박 및 위협 문자를 받고 있으며, 다섯 개의 교회가 테러당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고 있을 정도로 혼란스런 상황이다.

클라리스 메솔은 찰스 메솔의 동료 목사들이 계속 사역을 해나가면서 보여준 용기에서 큰 위로를 받았지만, 일반 성도들은 테러단체에 의해 포도시 습격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쉽사리 교회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클라리스는 정신적 외상과 슬픔을 이겨내고, 남편과 함께 꾸던 비전과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그녀와 함께 해주는 교회 식구와 함께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의지하며 지금도 몸바사에서 투쟁하고 있다.

이희희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한천영**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일합세례 오전 6:20

갈릴리션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성인 E모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30 한어청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3:30
 4부예배 오후 12: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생령과 부흥이 풍성한 교회

1925 Wilshire Blvd. LA / T. (213) 383-2600 (213) 413-1600
 임시예배처소 3119 W. 6th St. LA, CA 90020 hopenoor.org

주일 오후 4시 새벽 오전 5:30 (월-토) 저녁 오후 7:30 (화,목,금)

엘리아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978 S. Hoover St. #203 LA 90006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1부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0:00 2부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일예배 저녁 8:00

나성한인교회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221-9531 / F. (323) 221-0345

1부예배 오전 7:45 E모예배 오전 11:30 **진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십자가의 능력을 증거하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정우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1부 오전 5:3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0:30 (수) 오전 6:30 (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스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 (213) 598-0191

1부예배 오전 8:00 대학부 오후 1:00 **김광삼**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저녁 7:30(목)
 유초등부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중고등부 오전 10:45 6:00(토)

나성제일교회
 사랑과 사랑이 넘치는 행복한 교회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후 1:00 **김요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후 12:00 새벽예배 오전 6:00 (화-토)
 성경공부 주일 오전 11:00

남가주리디머교회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213) 215-8523 / scrdm.org

주일 예배 오전 11:00 삼일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이영** 담임목사
 찬양예배 오후 1:45 E.M.예배 주일 오전 11:00

라성빌라델비아교회
 하나님 중심 생활/ 말씀 중심 생활/ 교회 중심 생활

3240 Wilshire Blvd. #265 Los Angeles, CA 90010
 T. (714) 319-2234

주일예배 오전 9:00 교회학교 주일 오전 9:00 **김경렬** 담임목사
 E.M.예배 주일 오후 11:0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9:00
 청년부 예배 주일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목요찬양예배: 목요일 오후 7시 30분

산타모니카한인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 399-7949 / www.smkc.us

서건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청년부 주일 오후 1:3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새로남교회
 말씀과성령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

3407 W. 6th St 103 LA, CA 90020
 T. (213) 384-0305 / www.gwcla.net

김성광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2:00

성재복음선교회
 은 성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구원의 확신에 가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15 LA, CA
 T. (213) 327-9200, T. (213) 598-9932

박승부 장로 17기,27기,37기 수료생 배움, 현재기 수료생 양성 중
 -수기치료/의료선교사 양성
 -약품이나 기구없이 인간으로 각종질병치료하는 의술

세계의료선교사육성재단

2836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 381-7273 / (213) 605-2928

1부예배 오전 09:00 주일학교 오전 11:00 **조인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모예배 오전 10:00

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이경애 목사, **이은우** 목사
 무료 사회복지 상담 및 대형 (정부 배넛 진반) 음식 보조 프로그램(Food Stamp),메디칼, 임산부 메디칼

요한 선교교회

gkalk44 Yahoo.com Tel: (213) 703-6863
 522 N Hobart Blvd Los Angeles CA 90004

1부예배 오전 8:00 영어예배 오전 10:00 **김세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매일 오전 6:00

엘에이연합감리교회
 100년역사의 미국 본토에 세워진 최초의 한인교회

7400 Osage Ave. Los Angeles, CA 90045
 T. (310) 645-3698 / F. (310) 645-3060

1부예배 오전 8:00 **김해성**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영생장로교회

1829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 732-7356 / C. (818) 993-3574

김중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예향선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E-mail. baacdeew@hotmail.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회
 초대교회의가정의요성,성경학교이노니,만인제사장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신승훈**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대표 김갑선 목사 부설 : Naturo pathy Clinic(월-금)
 전문의의 213) 505-7067

지구촌 농업선교회

3000 W. 6th St. #309 LA CA 90020
 T. (213) 505-7067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일기도회 오후 7:30 **이명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중고등부 오전 11:00 오전 6:30 (토)

청운교회
 선교에 흠뻑 소.친.초 정신의 흐름,바른교회관의 흐름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전 11:30 **민중기**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충현선교회
 팔리서(Call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기도회(오후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중학교주일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주일학교 오전 11:00 Youth
 오전 6:00 (토)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2333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T. (213) 321-4433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7:30 **강지원**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1부예배 오전 8:00 E모예배 오후 2:00 **김기섭**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젊은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LA사랑의교회
 평신도들끼리 이룬다! 믿음의 동반자, 이룬다! 믿음의 동반자, 선교와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51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36
 T. (323) 930-0011, (323) 935-0011 / www.LASarng.com

교회 연합 선교회

LA 동부 지역

이희철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령집회 오후 8: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갯스윌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EM)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박해성 담임목사

남가주헬로쉽교회
순전한 말씀으로 열매맺는 진리의 공동체
375 N. Towne Ave., Pomona, CA 91767
T. (909) 397-5737 / nfcus.com

주일예배 오전 11시
주일학교 오전 11시
성경공부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토요일합새벽기도회 오전 6:00

김성일 담임목사

빅토빌예수마음교회
제자훈련사역과 성령사역이 조화를 이루는 성도공동체
T. (760) 220-3263, (760) 542-936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2:50
대학청년부예배 오후 12:5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고태형 담임목사

선한목자장로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sunhanchurch.com
1816 S. Desire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965-3443 / F. (626) 965-0404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1:45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신철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9:00

이춘준 담임목사

창대교회
173 E. Dumas St., San Bernardino, CA 92408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양성필 담임목사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mir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사우스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30
목요일예배 오후 7:30분
새벽예배 오전 6:00(수,토)

주일오후 성경공부 오후 1:30
영어예배(EM) 오전 11:30
유년주일학교 오전 11:30

안병권 담임목사

가나교회
1201 W. 255th St. Harbor City, CA 90710
T. (310) 986-9797 ganachurch.hompeee.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1부예배(EM) 오전 11:00
2부예배(EM) 오후 1:15
중고등부예배(EM) 오전 11: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9-11시

정상용 담임목사

나성금관연합감리교회
3153 W.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73-5106 / F. (310) 973-7429

김영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후 12:00
성경공부 주일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나눔 장로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521 Lomita Blvd #202 Torrance, Ca 90505
T. (310) 404-6219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15(화-금)
주일학교 및/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성도회 오전 10:00
성기대연습회 오전 10:20

서보천 담임목사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uschurch.com

권영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예배 오전 11:45

EM 1부 9:45/2부 11:45
중/고예배 오전 11:45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45

대흥장로교회
망할까지 내 증인이되라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20

박성규 담임목사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문화에 헌신하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강영석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성화장로교회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el. 310) 515-1191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청년부예배(EM) 오후 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강신권 담임목사

세계성경장로교회
신통(通)하고 인통(通)하며 문물(通)하여 만사형통합시다!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 (424) 257-8169 / F. (424) 257-8170

이중용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코너스톤교회
이 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김바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0:0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15(EM청년)
5부예배 오후 3:00(EM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Toddler - Youth 오전 11:30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am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토렌스 조은교회
www.torrancegc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 370-5500 / F. (310) 370-2009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냐다, 글렌데일, 벨리, 벤추라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성경공부/세교부/새벽예배 오후 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7:00(토)

류준영 담임목사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점심예배 오후 2:00

EM예배 오전 9:30/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성현 담임목사

드림교회
하나님의 꿈을 이뤄 드리는 교회
130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6
T. (626) 793-0880 / F. (626) 793-6412

최상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후 12:00
아동부예배 오전 11:50
학생예배 오후 12:00

수요중보기도회 오후 7: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벤추라감리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여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교회
4300 Telegraph Rd., Ventura, CA 93003
T. (805) 658-2171 / venturakorea.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00(세리투스채움)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세리투스채움)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벨리채움)
목요영성집회 오후 7:45(다우니 채움)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벨리채움)

최희정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5711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818) 363-5887 / in-christcc.org

EM예배 오전 10:00
스페인예배 오전 10:00
한국어 오전 10시(필로우쉽)
오후 12:00(번영)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금요일예배 오후 8:00

파사데나장로교회
새 사람, 새 교회, 새 세상을 열어가신 신앙공동체
585 E. Colorado Blvd., Pasadena, CA 91101
T. (626) 795-6252 / F. (626) 584-6544

주일 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6:00(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북미 원주민 선교 대장정의 서곡과 3대 전략

북미 원주민 선교회, 올해 선교지 미중부 3개주 11곳 답사 마쳐



위스콘신 Red Cliff 보호구역 코디들과 함께 기념촬영. (좌로부터)한석진, 송일권, 함성은, Rona, Lynn, 김동승, 샘리. (포토 : 북미 원주민 선교회)

뉴욕교회연합선교대회 다음날 새벽 4시 30분에 장도에 오른 북미 원주민 선교회의 책임 선교사 김동승 목사와 총무인 송일권 목사, 한석진 목사, 함성은 목사, 샘리 전도사가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미중부 지역 3개 주(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11곳의 선교지를 모두 순방했다.

이번 답사의 목적은 Leech Lake의 코디네이터인 Gary Charwood를 비롯한 각 선교지의 원주민 지도자들과 원주민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책임 선교사 및 선교회의 목사들과 함께 올해 여름 연합선교의 효과적인 사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함이었다.

북미 원주민 선교회의 미주지역 북미 원주민 한인교회 연합선교회는 2006년에 뉴욕의 몇몇 교회와 김동승 선교사와의 협력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작됐었다.

현재는 뉴욕, 뉴저지, 워싱턴, 스프링 필드, 펜실베이니아, 필라델피아, 오하이오 한인 교회들을 비롯해 총 70여 교회가 미중부 3개 주와 미동부 뉴욕 주 등 전역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

뉴욕, 뉴저지 교협 등과 함께 협력하여 연합선교 운동을 펼치고 있는 북미 원주민 선교회는 새롭게 조직을 재정비해 북미 원주민 선교를 전략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기본 전략은 교회개척(보호구역과 주요 도시내 원주민 Church Planting), 리더십 개발(북미 원주민 신학교를 통한 원주민 사역자 양성-Leadership Development), 그리고 지역 개발(새마을 운동을 통한 Community Development 및 직업 창출) 등이다.

북미 원주민 선교회는 선교의 자유가 원천 봉쇄된 보호구역 내에서 문화교류를 통해 선교의 토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교회를 개척하고 선교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의 힘을 모아, 2008년에 이미 설립된 '북미 원주민 신학교'를 통해 현지인 사역자를 꾸준히 양성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건강한 교회를 맡기는 등 통전적인 선교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토론토 근방에 있는 1.4에 이커의 북미 원주민 신학교는 현재의 신학교 건물에서 약 30분 떨어진 거리에 캐나다 형제 교단이 운영이 어려워 1.2M에 시장에 내놓은 14에이커의 넓은 교정과 강의실, 도서관, 식당, 기숙사 등의 완벽한 시설을 갖춘 캠퍼스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

김동승 목사는 "이번 답사여행에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뉴욕, 뉴저지, 스프링 필드, 워싱턴 지역의 뜨거운 교회 연합선교와 희생적인 헌신을 통해서 미네소타, 위스콘신, 미시간, 뉴욕 주 등의 12개 보호구역들의 문이 활짝 열린 것처럼 이를 바탕으로 각 보호구역마다 교회 개척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을 확신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각 한인교회내의 한어권과 영어권 선교사들의 뜨거운 협력에 이루어지는 북미 원주민 연합선교는, 한인족 디아스포라 교회를 통해 광대한 캐나다와 미국 전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북미 원주민 복음화의 대장정의 서곡일 뿐"이라고 전했다.

조요한 기자

비전교회, 창립 28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 가져



비전교회가 창립 기념예배 및 임직 예배를 드리고 있다.

애틀란타 지역의 비전교회(담임 정경성 목사)가 창립 28주년 기념예배 및 임직식을 30일(주일) 오후 5시 드렸다.

1986년 김요한 목사(불라하이츠대학교 부총장)에 폴립버스 지역에서 창립된 교회는 이후 클락스톤과 도라빌, 노크로스 등을 거쳐 작년 5월 현 건물을 구입해 돌루스에 자리를 잡았다.

2004년 미주한인장로회(KPCA)로 교단을 변경하면서 비전교회로 명칭도 바꾼 이 교회는 2008년 정경성 목사가 부임한 이래 그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다.

교단 관계자 및 축하객들을 자리를 가득 메운 이날 예배에서는 특별히 교회창립목사인 김요한 목사에게 공로패가 증정돼 의미를 더했다.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용호 목사(말씀의샘교회)는 "사도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무엇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함이다. 직분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있는 것이다. 순종함으로 높아지라.

예수님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으셨지만 사람들을 통해 증거 받으셨다. 섬기는 자가 되고 증거 받는 자가 되라"고 당부했다.

1986년 김요한 목사(불라하이츠대학교 부총장)에 폴립버스 지역에서 창립된 교회는 이후 클락스톤과 도라빌, 노크로스 등을 거쳐 작년 5월 현 건물을 구입해 돌루스에 자리를 잡았다.

2004년 미주한인장로회(KPCA)로 교단을 변경하면서 비전교회로 명칭도 바꾼 이 교회는 2008년 정경성 목사가 부임한 이래 그와 함께 꾸준히 성장해 가고 있는 중이다.

기념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김용호 목사(말씀의샘교회)는 "사도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 했다. 이것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고 삶의 과정에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기도 하다. 무엇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함이다. 직분은 내가 아닌 남을 위해 있는 것이다. 순종함으로 높아지라.

앤더슨 김 기자

김동호 목사, “잘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



부흥성회를 인도하고 있는 김동호 목사.

높은뜻연합교회 대표 김동호 목사 초청 부흥성회가 지난 28일(금)부터 30일(주일)까지 애틀랜타 지역의 늘푸른장로교회(담임 김기주 목사)에서 개최됐다.

‘주여, 이 땅을 고치소서!’(합2:14)를 주제로 열린 이번 집회에는 김동호 목사 특유의 명쾌하고 시원한 말씀을 듣고자 원근각지에서 모인 성도들로 성황을 이뤘다.

부흥성회에서 김동호牧사는 “우릴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명확하다.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이다. 하지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많지 않다. 대부분 죽지 못해 산다고 대답한다. 사람은 잘 살려 하지만 안타깝게도 잘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돈이 많은 건 부자이지 잘 사는 것이 아니다. 돈이 없는 것은 가난해서 힘들지않겠 못 사는 것은 아니다. 돈이 좋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 돈은 우리를 잘 살게 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동호 목사는 “1980년대에도 한국은 최빈국에 속했다. 국민소득이 1천불이었다. 70년대에는 80불이었다. 지금은 2만5천불 시대이다. 당시와 비교하면 엄청나게 잘 산다. 세상에 이런 나라가 없다. 하지만 그렇

다고 행복하지 않다. 돈을 우습게 볼 건 아니지만 돈이 우릴 잘 살게 할거라는 이상에서는 벗어나야 한다. 집 바꾸고 차만 바꾸다 죽는 인생을 살 것인가”라고 물었다.

김동호 목사는 또 “성경은 우리가 못 살게 하는 것은 가난이 아닌 죄라고 이야기 한다. 죄란 내 삶의 주인을 나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잘 살게 하는 것은 돈이 아닌 믿음이다. 내가 자동차 운전을 30년 했다고 비행기를 몰 수 있다. 내가 모는 비행기는 추락하게 되어 있다. 나와 세상은 하나님이 조종하셔야 안전하다”고 전했다.

높은뜻송의교회 개척 당시를 간증한 김동호 목사는 “잘 성장해 가던 동안교회를 그만두고 높은뜻송의교회를 개척한 것이 2001년이다. 오직 하나님의 주인이신 교회를 만들기 위해 힘썼다. 교회가 갑자기 커졌지만 2년간 임직자를 세우지도, 구역을 만들지도 않았다. 주일 예배만 드렸다.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삶을 살라. 그 삶이 진정 잘 사는 삶이다”라고 당부했다.

앤더슨 김 기자

세기총 2대 대표회장 장석진 목사 선출



취임 소감을 밝히고 있는 장석진 목사.

세계한인기독교총연합회 2차 정기총회가 25일 뉴욕성결교회(담임 장석진 목사)에서 개최, 신임 회장에 장석진 목사를 선출했다. 장석진 목사는 뉴욕교협 회장 뉴욕목사회 회장, 미주성결교 총회장, 미주성결대 이사장 등 뉴욕교계와 교단 내에서 중요한 리더십을 맡았던 인물로 미기총 대표회장 등도 역임하면서 한인디아스포라 연합 활동에 열성을 쏟은 인물이다.

신임임원은 △증경대표회장 박우근 목사 △상임회장 황의춘 목사(미주), 장종현 목사(한국), 김동업 목사(한국), 이병용 목사(일본) △서기 송병기 목사(뉴욕) △부서기 한기홍 목사(LA) △회계 박영진 장로(뉴욕) 등으로 구성됐다. 신임회장 장석진 목사는 취임인사를 통해 “세기총 대표회장 직분을 맡은 것은 세계를 섬기려는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죽도록 충성하기를 여러분 앞에 서약하면서 10대 사역을 힘 있게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포부를 밝혔다.

장석진 목사가 강조한 10대 사역은 △초대 회장이 닦은 터전과 진행한 사업들을 계승해 공고히 다질 것 △세기총의 필요성을 알리고 역할을 소개하는 활동을 벌일 것 △산하 16개 기관 및 단체 대표 초청 인사 △

한국교회연합회와 한국교계 연합을 위한 활동에 힘쓸 것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 ‘통국 기도회’를 적극 지원할 것 △위안부 문제, 독도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교계와의 연대 △한인선교사들의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는 연합을 이끌 것 △세계 한인들이 함께 기도하는 ‘특별기도회’ 추진 △정치색을 배제한 복음적 사역 감당 등이다.

회무에서는 세기총 정관에 대한 개정이 진행됐다. 이날 세기총은 사단법인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고 총재직, 협동총무직 등도 삭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보다 내실있는 단체로 운영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또 회계보고에 따르면 지난 한 회기동안 수입 3,000만원, 지출 2,820만원, 잔액 180만원이다. 회무 이후에 뉴욕과 미주지역 내빈들의 격려사와 축사들도 이어졌다.

축사 및 격려사는 조일래 목사(기성총회장) 격려사, 임형태 목사(미기총 대표회장) 축사, 이병용 목사(한세협 직전회장) 축사, 이재덕 목사(뉴욕교협 부회장) 축사, 류종길 박사(미주성결대 총장) 축사, 민승기 회장(뉴욕한인회)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김대원 기자

김신애 사모, 과사로 두 다리 절단... 계속 중보기도 요청

한달 넘게 힘겨운 투병을 하고 있는 김신애 사모가 과사로 결국 두 다리를 절단하고 두 손마저 절단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더욱 간절한 중보기도가 요청된다. 무엇보다 남편인 백성인 전도사를 비롯해 두 살배기 아들 백세인 군, 그리고 가족들이 지치지 않고 지금 상황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해 왔다.

콜롬비아신학교 동문인 강제철 전도사는 “김신애 사모는 의식은 있지만 숨쉬기 힘들어 해 호흡기를 다시 부착했으며 진통제를 투여해 계속 잠을 재우는 방법으로 겨우 견

디고 있는 상태다. 과사가 진행된 두 다리는 무릎 아래로 잘랐고, 손도 위험하다. 또한 계속된 투병으로 가족들도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들고, 주변의 여러 가지 압박이 밀려오는 상황이다. 김신애 사모와 가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김신애 사모의 병원비는 현재 50만 불에 이르며, 학교 지인들과 세조지아장로교회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을 하고 있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박현희 기자

O.C./얼바인 지역

오병익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2: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건강한 교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는 교회

7037 orangetherpe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 801-1625 kpcadavid@yahoo.com

1부예배 오전 7:20
2부예배 오전 9:00
3부예배 오전 11:00
한이대(평신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김영길 담임목사

금요찬양 오후 7:30
장애인예배 오전 11:00
영어장년부 오전 9:00/11:00
새벽기도회 매일 5:30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나침반 한국학교 주일 오전 9:15
EM대학부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6:30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여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청년)예배 오후 1:00

남가주동신교회
하나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는 교회

2505 Yorba Linda Bl., Fullerton, CA 92831
T. (714) 680-9556 / F. (714) 680-6418

1부 예배 오전 8:00
2부 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매일새벽예배 오전 5:30
Youth 예배 오전 10:30
EM예배 오후 2:30

남가주빛내리교회
God First 거룩한 MVP 공동체

1201 S. Beach Blvd. #110 La Habra, CA 90631
T. (714) 401-9874 / starkoreanchurch.org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2:30

새벽예배 오전 6:00 분당
수요기도 저녁 8:00 분당
금요찬양 저녁 8:00 분당

허규담 담임목사

노르워크 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로 세우는 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el: 562(802-4959, Cell: 714) 308-7038
E-mail: usa8291@gmail.com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금요 Alpha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이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1655 West Broadway St., Anaheim, CA 92802
T. (714) 999-9900 / visioncc.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우리가 그리스도이다.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오후 12시30분
중·고등부 오후 3시
청년부 오후 3시

성경공부 (화) 오후 8시30분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시
한국학교 (토) 오전 10

방익수 담임목사

사랑의방주교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정복하여 공동체를 살리는 교회

13955 Yale Ave., Irvine, CA 92620
T. (949) 654-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신원규 담임목사

삼성장로교회
주님 주신 축복과 은사는 성도의 삶 선과 구원의 심으로 심힌

501 S. Idaho St., La Habra, CA 90631
T. (562) 690-9800 / F. (562) 690-8044

1부예배 오전 7:30 (분당)
2부예배 오전 10:00 (분당)
3부예배 오전 12:30 (FC채움)

EM예배 오전 10:00 (FC채움)
오전 12:30 (분당)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45 (월-금) / 6:00 (토)

이재담 담임목사

세리토스장로교회

11841 E. 178th St., Artesia, CA 90701 (분당)
T. 562-677-7777, F. 562-677-7778 / ilovepc.org

주일예배 오전 10:45
EM영어예배 오후 12: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5:30 (화-토)

김민재 담임목사

예진교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친구' 공동체

955 W Imperial Hwy Brea, CA 92821 ECCU Auditorium
(Worship Center) T. (714) 788-3677
18639 Yorba Linda Bl. Yorba Linda, CA 92886 (교회 사무실)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월간예배 (수) 오후 7:30
성명집회 (매월 둘째 금) 오후 7:30

김성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교회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F. (949) 857-9242

최상준 담임목사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중고등부 오전 11: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얼바인 한민음교회
믿음으로 하니되는 교회

18182 Culver Dr., Irvine, CA 92612
T. (949) 769-9628

김삼도 목사

관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10:00

얼바인 할렐루야교회

15520 Rockfield Blvd, #F Irvine, CA 92618
T. (949) 514-4346 F. (949) 305-3951

주일예배 : 1부 오전 6:00 매일 오전 6:00 (화-금)
오후 7:30 오후 7:30

(매월 S,D,F, Power minister)

지 사른 담임목사

열방사랑선교센터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은사로 연합된 영혼구원과 해를 넘겨 나라를 이끄는 사랑과 성령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부르심을 받고 인도하는 선교터

9850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T. (714) 488-8291, (714) 644-1697

주일 인터넷 생방송듣기 오전 6:30
주일 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후 7:30
토요 예배 오후 6:00

우대권 담임목사

초등부 목요일예배 오후 7:30

영광빛복음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주일 1부예배 오전 9: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아주일예배 오전 10:00

유년부 초등부예배 오전 11:30
영아중고등부예배 오전 11:30
한이대중고등부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5:30
토 주일 오전 6:00

영명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주일예배 오후 1:00 (분당)
EM예배 오후 1:00 (pre-school)
주일성경공부 오후 3:00
목요성령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
이스라엘 세미나: 매달 첫째 주 (토) 오전 10:00

최국현 담임목사

은혜와진리교회
부설: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성지순례, 정밀전문

4000 Green Ave, Los Alamitos, CA 90720
T. (714) 351-0124 (Cell), (562) 475-4323 (Church)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후 11:30
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00
금요성령예배 오후 8: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성령받은 교회, 세계선교를 미루지 않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30
3부찬양 오전 11:15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목성예배 오후 2:30
주일신학교 오후 7:30
화요 중보예배 오후 7:30

수요 예배 오후 7:30
목요 성령학교 오후 7:30
토요일 오전 06:00
금요일아침예배 오후 8:00
토요 EM예배 오후 7:30

목회 담당 앤드류 김 목사
선교 담당 인준석 목사

작은자 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 교회

1681 W Broadway Anaheim, CA 92802
Tel: 714-635-6402,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3부 1:30

수요기도회 : 오후 8:00
새벽기도 : 오전 5:45 (월-금)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 빛 교회

7651 5th St., Buena Park, CA 90621 www.lordlight.org
T. (562) 896-9191, (714) 670-6700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버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을 세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엘에이 정식허가 고급하숙

임주자화재 \$ 책임보험 5성급호텔의 시설
아침, 저녁 제공 케미 tv 초고속인터넷, 냉장고, 세탁장, 교통편리

1호점: 8가 + Catalina, 정식허가
2호점: 5성급호텔의 시설 (올림픽+원저)
3호점: 최고급 5성급호텔 시설 (3가+옥스퍼드)

T. 213.327.4710

“WCC · 가톨릭 반개종주의, 기독교 선교 질식시킬 수도”

선교신학연구소, ‘WCC 부산총회의 선교신학적 동향’ 세미나

선교신학연구소(소장 이동주 박사) 정기세미나가 29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세미나실에서 ‘WCC 부산총회의 선교신학적 동향’을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박영호 박사(전 한국성서대 교수)가 ‘WCC 부산총회의 신학적 평가’, 이동주 박사(전 아신대 교수)가 ‘WCC와 로마가톨릭의 연합운동: 부산총회 선교신학을 중심으로’, 유경석 목사(연구위원)가 ‘WCC 부산총회 주제에서 생명이 관한 성경적 고찰’, 권혁찬 목사(연구소 총무)가 ‘WCC 부산총회의 일치운동이 세계선교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가톨릭의 심계명에는 ‘우상숭배 금지’가 빠져 있다

이동주 박사는 WCC와 가톨릭 간의 여러 합의문서들과 개종전도 금지주의 등에 대해 에큐메니칼계에서 ‘WCC 선교활동의 지침서’라 불린 M. 키나몬의 <에큐메니칼 운동(한들)>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이 박사는 “가톨릭교회가 WCC와의 대화 가운데 ‘베

중앙위원회는 ‘공동의 비전을 향한 교회(신앙과직제 문서)’ 제39항에서 ‘상호간 대화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의 통일성 안에 하나의 전통을 체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고백하면서 이에 호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1982년 WCC와 가톨릭의 연합 연구 모임이 작성한 문서 ‘공동의 증언: 로마가톨릭 교회와 WCC 간의 연합 연구 모임’ 21항에서 ‘교회는 오늘날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하는 행동들을 증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와 창조세계의 구원자요 주’라고 선포한다. 이에 대해 “WCC 세계선교와 전도위원회(CWME)의 대화 프로그램이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와는 상반되는 성경적 선교관”이라면서 “가톨릭과의 이러한 공동 고백은 단순히 사도적 신앙을 따른다는 뜻만이 아니라, 가톨릭으로서 베드로의 후계자를 따라야 한다는 의미가 함께 내포돼 있다”고 했다.

1982년 WCC와 가톨릭 간의 신학적 의견수렴으로 만든 BEM(Baptism, Eucharist and Ministry) 또는 리마 문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박사는 “BEM 성만찬론에서 발견되는 가톨릭 신학을 보면, 미사와 화체설, 반복적 희생제와 죽은 자와의 교제 및 만민구원 신앙이 공존하고 있음이 발견된다”며 “WCC가 이처럼 가톨릭의 성만찬론에 합의한 것은 더 이상 개척교회의 중심이 설교 말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가톨릭의 심계명(천주 심계)을 거론하면서, 개신교 심계명과 성경에 나오는 우상숭배 금지에 대한 ‘제2계명’이 없다고 전하면서, “그러므로 가톨릭 신도들은 죽은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부산총회 개최를 앞두고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개종전도 금지주의’에 대해서도 “개신교 선교사들이 로마 가톨릭 지역과 정교회 지역에 가서 명목상 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활동이나 교회를 세우는 일을 금지하는 것”이라며 “WCC가 말하는 반개종주의는 이슬람이 칼로 지키는 것으로,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자유로운 결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도록 하는 현대 기독교인들과 관계 없는 행위”라고 했다. 이 박사는 “WCC와 가톨릭의 반개종주의는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독교 선교를 질식시켜 버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동주 박사는 “WCC와 CWME 등의 각종 보고서와 선언문을 보면, 1960년대 이래 영혼 구원과 예수 그



지난 29일 서울 연지동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세미나실에서 ‘WCC 부산총회의 선교신학적 동향’이라는 주제로 선교신학연구소 정기세미나가 개최됐다.

리스도의 재림, 하나님의 심판과 불신자의 멸망, 사후 천국과 지옥, 몸의 부활 등과 같은 성경적 개념들이 사라졌고, 우상숭배와 이단, 그리스도와 구원의 유일성, 구원의 확신과 영분별, 선교, 파송, 선교 후원, 개종 등의 단어들에 대해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20세기 후반부터 WCC와 가톨릭은 기독교 바깥의 정치·경제 통합 운동과 병행해 세계연합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많은 영혼들에 대한 아픔이나 구원의 메시지를 전파하는 대신 ‘가시적 연합’만을 위해 모든 종파들을 더 크고 광범위하게 뭉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에큐메니칼, 말씀 변질 등으로 배교 위험에 처해

앞서 박영호 박사는 이번 부산총회에 대해 “중도 복음주의 신학자들의 ‘WCC가 한국교회의 영향을 받아 복음적으로 변화될 것’이라는 예측과 설득은 빗나갔고, 이러한 오관으로 한국교회는 교리와 진리에 대한 민감성만 상실하고 말았다”며 “에큐메니칼 연합운동과 연합단체들은 언젠가 배교의 위험에 처해 있고, 배교 활동 중에 있다”고 밝혔다. 박 박사는 “WCC는 오래 자주 사용하는 모호한 구사법을 활용하면서 종교다원주의를 표방한 적이 없다고 말한다”며 “그러나 명확하게 타종교에 구원이 없다고 하지 않는 것은 종교다원주의를 부정하지는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북한 선교와 용공주의 논란에 대해서 “WCC는 부산총회에서 북한의 조그런(조선그리스도교연맹)이나 불수교회 등을 인정하고 남북교회 교류를 강조하는 한편,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 유엔의 대북 경제제재와 금융제재를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며 “그러나 북한 지하교회 성도

들의 박해를 규탄한다거나 전쟁도발 위험 중지에 대해서는 일관반구 언급도 없는 등 진보 진영과 교회들이 그동안 주장해 온 내용과 다를 바 없었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WCC도 초기에는 복음적이고 선교적인 정열로 가득 찬 신학적 일치감에 기초해 시작됐지만, 차츰 변질됐다”며 “가장 큰 배교의 핵심은 말씀의 변질,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과 종교다원주의, 비뿔어진 복음주의의 신앙 등으로, WCC의 비뿔어진 신앙의 작태가 어떻게 비뿔어진 기독교를 만들고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여줄 때”라고 전했다.

유경석 목사는 부산총회의 핵심 키워드인 ‘생명의 개념이 새 선교-전도 선언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인간을 넘어선 생태계 전반으로 생명 개념의 확대 △그리스도에서 성령 중심으로 생명 구원의 변화 등이다. 이에 대해 “WCC는 영생을 자연적 생명과 혼동함으로써 회심과 개종,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유일성을 상실했다”고 전했다.

다음으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한 것으로, WCC는 자연적 생명의 보전을 중심으로 이를 파악하지만 그 안에 그리스도의 대속과 그 결과인 하나님과의 화목을 발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생명 살림’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도 WCC는 선교의 관심을 교회에서 ‘세상’으로 돌려놓았고, 구원관도 세상에서의 살림 구현과 인관화에 두고 있다. 그는 “회개와 대속,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빠진 어떠한 주장도,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비성경적 것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유 목사는 “생명을 자연적으로 한정하면,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며 “선교는 단

순한 육체적 생명 살림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대속을 받아들여 회개와 고백을 통해 회심하고 삼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참 제자가 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동참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찬 목사는 “WCC는 교회의 본질과 속성을 가시적으로 이해하여 하나의 거룩하고 공교회적이며 사도적인 교회는 가시적 일치에 있는 곳에 존재한다고 본다”며 “그러나 성경은 교회 일치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고, 사도들이 증언한 진리가 고의적으로 반대·부정되는 곳이라면 이미 진정한 일치성을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필리핀 선교사 출신의 권혁찬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는 진리가 부정되고, 성육신과 십자가 사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신학이론 곧 모든 인류가 보편적으로 구원받는다는 곳에 성경이 제시하는 진정한 일치는 없다”며 “필리핀에서는 가톨릭교회 옆에 교회를 짓는 일을 개신교회에서 반대하고 있고, 개신교 목회자들은 가톨릭 신도들에게 전도하면 안 된다고 항의하는 등,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복음 전도는 선교 현장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권 목사는 “이처럼 WCC는 교회일치를 넘어 인류 연합과 일치를 위한 타종교간 대화를 위해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복음 전도 선교를 위협하고 있다”며 “부산총회의 일치성명서는 그 일치의 범위를 더욱 확대시켜 창조세계의 일치를 위한 대화를 공식화했는데, 이러한 일치와 대화를 위해 선교의 핵심인 구령 사업과 교회 건설, 목회자 양성 목적의 신학 교육과 선교가 막을 내려야 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대용 기자



이동주 박사가 발표하고 있다.

드로의 수장성과 그 후계자들의 권위’를 강조하는 것은 WCC에 대해 가톨릭교회의 수장성을 주장하려는 것”이라며 “가톨릭교회의 종교 간 대화에는 WCC를 가톨릭 교회와 교황 아래로 흡수 통합시키려는 강력한 의지가 숨어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가톨릭 교회는 개혁교회를 향해 ‘우리의 갈라진 형제들’이라 칭하고, WCC의 여러 부서 회원이 됐음에도 정식 회원 가입은 거부하면서 WCC가 교황 밑으로 귀환하기를 기다리고 있음을 표명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WCC는 2012년 WCC

입으면 허리문제가 해결되는 희안한 옷!!

너무 쉬운 「NB 코르셋의 원리」를 알면 통증의 원인을 쉽게 고칠 수 있습니다. 「NB 코르셋」은 내 몸을 멋진 틀(NB 코르셋 깍시에 넣어 자연 치유력을 이용한 과학과 지혜로 미와 건강을 만들어 내는 **걸작품**입니다.



허리교정을 위한 남성용도 있습니다.

쓰러진 토마토를 세우는 것은 **버팀목**입니다. 의사가 척추를 바르게 세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깍시를 하지 않고는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버팀목(기립근)이 약해서 제대로 지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NB 코르셋」은 늘어나지 않는 특수 천으로 깍시를 대신하고 코르셋 속의 10개의 버팀목이 약한 근육을 대신하여 **골반과 척추와 경추를** 바르게 교정해줍니다.



- ### NB 코르셋이 필요하신 분
- >> **디스크환자**
좌골신경통 허리통증 척추측만증 교통사고
 - >> **각종 질환**
요실금 중풍 관절염 손발 저림 만성피로
 - >> **체형교정**
골반 틀어진 분 허리 굽은 분 O형다리 거북이목
 - >> **미용효과**
목주름 많은 분 얼굴비대칭 복부비만 부정교합

- ### NB 코르셋의 특징
1. 24시간 입어도 갑갑하지 않고 편안함
 2. 입자마자 자세가 달라짐(교정)
 3. 입자마자 혈액순환이 달라짐(통증 완화)
 4. 특수 공법의 인체에 완벽한 섬유+세계 특허 이중 지퍼사용 한 **식약처에 의료기기로 등록된 옷.**

NB CORSET Tel: 323.316.6815
WWW.nbcorset.co.kr 3456 W.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19

무료 광고지참시 방문하신 모든분께
*자세 사진 촬영 *현미경 혈행 검사 *체질 검사

달라지는 청년 선교동원운동...참가자 줄어도 헌신도는 유지

선교한국 대회 변화 필요, 어떻게 달라졌나

교회 청년부 약화, 학원선교의 위축 등에도 청년, 대학생의 선교 관심도 및 헌신도는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선교현장으로 나가는 비율은 현저히 줄고 있다. 선교한국은 신입 선교사의 평균연령을 40세 이상(남성 기준)으로 추산한다. 전세계에 선교사를 활발히 파송한 1선교단체는 20대 신입 선교사 비율이 20년 전에 비해 4분의 1로 줄었다. 청년 선교현장 전문가들도 "파송되는 선교사 중 이제 20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한국선교의 미래인 젊은 선교 헌신자, 관심자를 선교에 동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독교일보는 국내 대표적 청년, 대학생 선교동원 운동을 펼쳐 온 선교한국의 통계를 바탕으로 다음세대대의 헌신도, 관심도를 분석하고, 전문가로부터 선교한국 대회의 방향성과 향후 청년선교동원 전략을 들었다. (편집자주)

한국의 다음세대를 선교에 동원하는 선교한국 대회 전체 참가자 수가 2008년 이후 계속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거에 비해 선교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참가자의 선교 헌신도는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선교한국 대회 조직위원회가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대회가 시작된 1988년(664명)부터 1996년(6300명)까지 전체 참가자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1996년부터 2006년까지 10년 간 대회 평균 5700여 명이 참여했다. 그러나 2006년(6209명)부터는 참가자

가 계속 줄어들어 지난 2010년(3975명), 2012년(3920명)에는 3천명 대로 떨어졌다.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2일까지 팽태대학교에서 열리는 선교한국 2014대회는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에 초점을 맞춘 대회로 참석인원을 2600명으로 제한했다. 대회 등록은 지난 3월 3일부터 시작됐다.

선교한국 관계자는 참가자 감소 현상에 대해 "전체 참가자가 줄어든 것은 굳이 선교한국 대회에 참여하지 않아도 선교에 대해 접하고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선교한국 대회가 처음 열릴 당시 선교는 교회에서 생소한 단어였다"며 "지금은 선교가 보편화되면서 과거처럼 단순히 선교를 알기 위해 참석하는 경우가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SFC 선교동원책임 김동춘 간사도 "선교 정보, 동원 등 기본적인 내용은 요즘 지역 교회나 캠퍼스 선교단체 등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며 "교회 파송 선교사로부터 선교지에 대한 정보를 계속 듣고, 비전트립도 많아져 선교한국에 대한 기대가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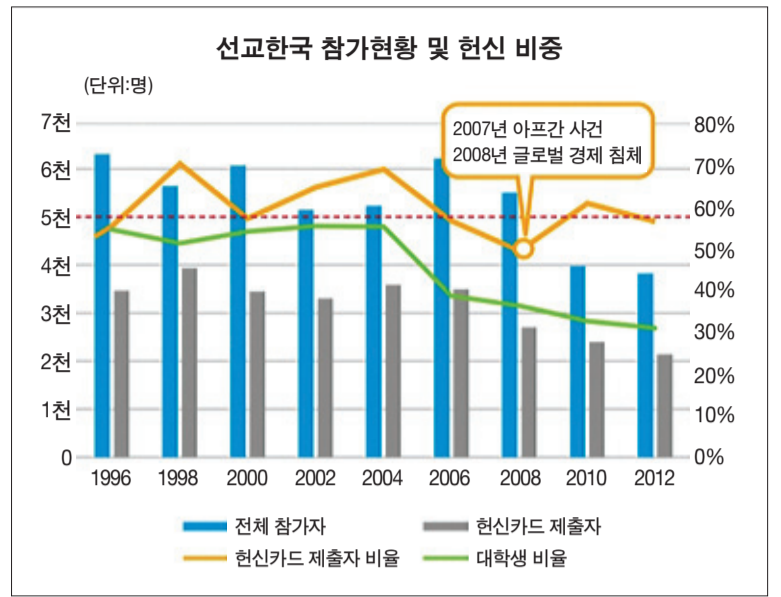
교회 청년부 약화, 학원선교의 위축 등에도 대회 참가자들의 선교 관심도, 헌신도는 유지되고 있었다. 선교한국 대회 헌신카드 제출자 비율은 1996년부터 50~60%를 유지해 왔다. 또 대회 참가자 중 전체 참가자 감소에 따라 선교 관심자, 헌신자도 1996년부터 약간 줄었으나, 전체 참가자 대비 비율은 50%대를 유지했다. 단 2008 대

회에서는 2007년 아프간 사태, 2008년 글로벌 경제침체 등으로 인한 심리적 위축 때문에 헌신카드 제출자 비율(49.1%),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비율(43.7%)이 일시적으로 줄었다.

선교한국 관계자는 "헌신카드 제출자 중에는 가장 간단하고 쉽게 결단할 수 있는 기도 후원자도 포함되어 있어 헌신도를 충분히 반영한 수치는 아니다"며 "내부 통계에 따르면 선교 관심자 및 헌신자 중에서도 실제로 선교 현장에 나가거나 선교적 삶을 결단하는 비율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체 참가자 중 대학생 비율은 줄어드는 현상을 보였다. 1996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생 비율은 평균 53.7%를 차지했으나, 2006년(38.4%) 크게 떨어진 후 꾸준히 감소해 2012년 대회에서는 30.7%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젊은 세대의 선교동원 및 파송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선교한국 대회 참가자들이 선교에 대한 기본적인 관심을 넘어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선교를 '접촉'하려는 목적이 커지면서 대회 방향 및 내용에도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선교한국 관계자는 "이제는 선교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선교를 알아가기 위한 목적보다 자신의 전공과 은사 등을 어떻게 선교에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많이 찾는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로 2012년 대회 하루 만에 선교박람회 참여한 선교단체들이 버스 방문자를 위한 매뉴얼을



나이스크 포럼 필리핀 '14(Nyskc Forum Philippine '14)

바꿔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며 "참가자들이 이미 많은 정보와 사역 청사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데, 선교 관심도와 헌신도가 높아진 것을 반증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12년 향후 선교한국 대회 참여자를 줄이고, 참가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선교한국 관계자는 "대회 기간 중 수요일(7월 30일)에는 캠퍼스 곳곳을 선교 현장으로 꾸며 참가자들이 각국의 음식, 의복 등 문화를 체험하는 '선교한국 한마당'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선교한국 2014대회 준비위원장인 김동춘 제자들과 선교회(DFC) 총무는 "선교한국 한마당에서는 선교 현장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선교에 도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가자들이 현지 선교사들과 만나

고 교제하는 시간도 더 늘이기로 했다. 김동춘 준비위원장은 "현장 선교사들이 강의도 하지만, 선교사가 어떻게 준비하고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참가자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도록 기존 대회보다 시간과 환경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거 나가는 선교 헌신자들을 중심으로 선교사들과 만남의 기회를 제공했다면, 이번 대회부터는 되도록 모든 참가자들이 선교사와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고 덧붙여 말했다.

김 준비위원장은 "취업 문제 등 사회 구조 속에서 벽을 느끼는 대학생이 많고, 이는 크리스천 대학생도 동일하다"며 "개인적으로 이번 선교한국 대회를 통해 청년, 대학생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보고, '청년다움'과 역동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면 좋겠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이지희 기자

“K팝스타? 우리가 바로 ‘크리스천 뮤직’의 진짜 스타!”



'오픈 마이크' 파이널 라운드 후 참가자들과 심사위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크리스천 뮤직 오디션 사상 최초로 작곡·보컬·드럼·기타·베이스·건반 등 다양한 음악적 재능인을 선발하는 '주빌리 코리아'(이사장 이형민 목사) 주최 CCM&워십 서바이벌 오디션 제1회 '오픈 마이크'(OPEN MIKE)에서 영광의 '톱 10'을 가렸다.

3월 29일 오후 서울 김용동 주빌리 센터에서 열린 파이널 라운드. 지난

4개월여의 대장정을 마무리한 이날, 500여명의 지원자들을 뚫고 올라온 20명의 '육성'들이 치열한 경합을 펼쳤다. 여기에 '총철살인'의 심사평이 긴장감을 더했다. 그리고 마침내 '톱 10'이 탄생한 것.

△작곡 임경호 △보컬 전정숙(톱 1), 여두혁, 김예원, 임효식, 임지수 △드럼 류건희 △베이스 신성광 △건반

김진성 △기타 허승민 씨가 바로 그 영예의 주인공들. 이들의 이름이 호명될 때마다 환호와 기쁨, 눈물이 교차했다.

우승자들에게 미국 뉴욕과 CCM의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내슈빌에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이중 보컬 부문 '톱 1'을 차지한 전정숙 씨에게 특별히 '음반 발매'라는 선물이 마련된다. 무엇보다 이들은 앞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 전문적인 매니지먼트를 통해 '주빌리 코리아'를 대표하는 사역자'들로 양성된다.

이번 '오픈 마이크'는 음악적 전문성 뿐 아니라 영상, 공연기획, 그리고 홍보에서 심사까지, 숨어 있는 인재 발굴을 위한 대대적 프로젝트였다. 특히 '톱10'이 탄생한 29일 밤 파이널 라운드는 국내 크리스천 음악계에 전례 없던, 역사적 자리였다는 평가다.

크리스천 뮤직 사상 최초로 작곡과 보컬, 기타(드럼·기타·베이스·건

반) 등 다양한 음악 부문에서 오디션을 진행한 '오픈 마이크'는, 지난해부터 약 4개월 동안 예선과 본선, 멘토 트레이닝 등을 거쳐 이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심사위원으로는 심사위원장인 드러머 권낙주 대표(한국기독교음악인연합회 총무)를 비롯해 이형민 이사장(주빌리 코리아), 기타리스트 조필성(예레미 리더), 보컬리스트 김정아(소울싱어즈 리더), 베이시스트 박원권(PM뮤직 대표), 최유정(페이먼트밴드 건반), CCM 사역자

나영환(2004 전국복음성가경연대회 대상) 씨가 참여했다.

주빌리 코리아 이형민 목사는 "과거와 달리 크리스천들이 누릴 수 있는 '기독교 문화'가 양적·질적으로 빈약한 것이 현실"이라며 "신앙인들의 삶을 진솔하게 노래하면서도 일반 대중음악에 뒤지지 않는, 수준 높은 CCM 및 워십으로 한국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빌리뮤직의 비전이자 목적"이라고 말했다.

김진영 기자

기독교일보

편집국: 박희민, 정재호, 이원상, 박기호, 방지락, 김준연,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김혜성
 발행인: 이인규 편집국장: 토마스 뎡
 고문변호사: 정찬용
 지사망: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크랜트, 시애틀
 대표전화: (213) 739-0403 / E-mail: chdailya@gmail.com
 Payable to order: Christianity Daily
 주소: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지긋지긋한 당뇨병 타겟출

평생을 안고가던 당뇨병이 이제는 치료가 됩니다. 새로운 당뇨 개선제 PRO-Z를 6개월만 복용하시면 지긋지긋한 당뇨병에서 해방되어 정상인과 같은 체질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여 줍니다.

신제품
소비자 공급가 \$76
*한국에서는 \$145에 판매중

재미과학자 송문기 박사는
 UCLA의과 대학 박사로 40여년간 연구 개발한 PRO-Z는 미국FDA에 치료 약으로 신청중이며 주성분인 아연과 크롬으로 의약품계에서 획기적인 연구개발로 임상평가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의 재향군인 병원에서 임상실험 결과 최소한 6개월복용시체중에 탁월한 효과로 개선됨을 확인하고 있는제품입니다.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췌장베타세포의 기능 복원을 개선시키는데 PRO-Z가 해결해 드립니다. 현재까지는 수만종류의 당뇨약이나 인슐린으로 혈당 유지를 하는데 그쳤으나 PRO-Z는췌장에 인슐린 분배를 확실히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제제로 세계 최초로 미국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을 받고있는당뇨 개선제 입니다

스페셜 할인가
 2병 \$120 + tax

PRO-Z USA
미국 판매처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타주 대리점 모집
당뇨병의 원인 치료개선제
PRO-Z

[한국 교회사 이야기]

한국 선교를 가능케 한 이들 - 가우처, 맥 윌리엄스

해외 선교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구비 되어야 한다. 첫째는 선교지에 갈 선교사, 그리고 그 선교사들의 생활비와 활동비를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사람이나 단체이다. 한국 선교가 실현되기 위해서 후자의 일을 담당한 이들이 있다. 감리교회에는 가우처(John Goucher), 그리고 장로교회에는 맥 윌리엄스(David McWilliams)이다.

조선은 밀려드는 해외 제국들의 세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이들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한다. 맨 처음 조약을 맺은 나라는 미국이다. 1882년 조선은 미국과 통상조약을 맺는다. 그 후 계속해서 그 외의 제국들과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비로소 조선은 세계와 교류를 시작한다. 미국과 조약을 맺은 후 조선은 1883년, 미국에 사절단을 파송한다. 사절단 일행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대륙 횡단 기차를 타고 워싱턴을 향해 출발한다. 여행 중 콜로라도에서 한국 선교사상 배움을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을 만난다. 그는 메릴랜드(Maryland)주 볼티모어(Baltimore)에 있는 가우처대학의 설립자이며, 미국 감리교회 목사로서 해외선교부의 출중한 지도자였던 가우처 박사였다. 3월 동안 같이 여행하면서 가우처 박사는 한국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그는 한국 선교의 가능성을 내다보면서, 1883년 11월 감리교 외지 선교 본부에 한국에 선교 사역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편지와 함께 선교 자금 2천 달러를 송금하였다. 그러나 미국 감리교회는 아직 한국에 선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신통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이에 가우처는 일본에서 일하고 있는 감리교

선교부 대표 메클레이(R. MacLay)에게 직접 편지를 써 보낸다. 편지에서 그는 “한국에 나가서 그 나라를 실제 답사한 후 선교 사업에 착수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메클레이는 이 편지를 받은 즉시 한국행을 결심하고 부인과 함께 1884년 6월 2주간 예정으로 한국으로 출발한다. 그는 전에 일본에 있을 때, 교제를 나누었고, 당시 정부의 고위 관직에 있었던 김옥균을 만난다. 그를 통해 한국에서 의료 사업과 교육 사업을 하게 해달라는 청원서를 국왕에게 전하였다. 며칠 후 김옥균은 메클레이에게 국왕으로부터 한국에서 병원 사업과 교육 사업을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이 회답을 받은 메클레이는 주한 미국공사에게 공사관 가까운 곳에 선교 사역을 시작할 대지를 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해놓고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으로 귀환한 후, 그는 “우선 교육 사업과 의료 사업부터 시작하지만 궁극적 목적은 전도에 있다는 것을 감추지 않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학교 사업은 대한영을 받을 것이며 병원 사업은 시급한 요구이다”라는 내용의 편지를 미국 선교 본부에 보냈다. 선교본부는 메클레이의 편지를 받고 한국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일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도 한국 선교를 호소하는 글을 선교 잡지 「복음세계」(The Gospel in All Lands)에 투고하였다. 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선교 헌금을 보내왔고, 가우처 박사가 보내 온 선교 헌금도 이에 추가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일들은 미국 북감리교회로 하여금 한국 선교의 첫발을 딛게 하



김인수 목사 전 미주장신대 총장

였다. 1884년 말에 목사이며 의사인 스크랜톤(W. Scranton), 그의 모친인 스크랜톤(M. Scranton) 여사, 아펜젤러(H. Appenzeller) 목사가 한국의 첫 선교사들로 임명을 받고 내한하였다. 이로써 한국 감리교회의 선교가 비롯되었다.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 선교를 위한 작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을 때, 미국 북장로교회 역시 한국의 선교 사업에 대한 작업을 조용히 진행시키고 있었다. 전술한 대로 이수정의 한국 선교에 대한 호소는 적지 않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선교본부위원들 간에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하였는데, 대체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과 즉시 시작해야 한다는 양분된 의견이었다. 미국 회중교회 해외선교부 총무는 한국 선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내용의 글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미국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 총무 엘린우드(F. Ellinwood)는 한국 선교는 즉시 착수되어야 한다는 선견지명을 갖고 있었다.

이때 하나님께서 한국 선교를 위해 예비해 두신 한 사람이 한국 선교에 대한 글을 읽고 선교 본부에 문의하였다. 그는 맥윌리엄스

(D. McWilliams)라는 사람으로 뉴욕 브루클린에 소재한 라파이에트(Lafayette) 장로교회 교인이었다. 또한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의 부원이었으며, 마퀼드(F. Marquand)의 유산 관리인이었다. 그는 북장로교회 해외선교부 총무 엘린우드에게 한국 선교에 대한 가능성을 묻자, 엘린우드는 그에게 한국 선교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맥윌리엄스는 그의 말을 듣고 만일 한국에 선교를 지금 시작한다면 선교사 두 명의 2년 간 생활비로 5,000달러를 내어 놓겠다는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다.

“친애하는 목사님, 만일 장로교회 해외선교부의 판단에 따라 한국에 이 시점에서 선교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하고 합법적이라면 두 사람의 선교사 2년 간의 비용을 선교부에 지급하겠습니다. 지급하는 방법은 반 년에 한 번씩 선급하겠다는데 그 합계 자금은 5,000불이 될 것입니다. 자금의 지불은 프레데릭 마퀼드(Frederick Marquand) 유산 중에서 될 터인데, 그 유지는 “교육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일, 또는 국내, 해외에서 행해지는 선한 사업을 격려하고 돕는 일에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은 북장로교회 선교부는 한국 선교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였다. 다른 사람들도 선교 헌금을 보내고 선교 사역이 구체화됨으로써, 선교부는 1884년 봄에 한국의 첫 선교사로 “의술이 훌륭하고 헌신적 정신을 가진 젊은 의사” 헤론(John Heron)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선교부는 아직 한국의 형편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었고 바로 입국하는 것이 위험 부담이 있다고 판단

하였다. 그러므로 헤론으로 하여금 일단 일본에 머무르며 한국어를 습득하면서 때를 기다리도록 조치하였다. 헤론은 한국의 선교사로서 맨 먼저 임명을 받고 일본에까지 와서 기다리고 있다가 1885년 6월에 입국하였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 같이 선교에는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이 필수적이라 했는데, 아무리 많은 사람이 해외 선교를 지원한다 해도 물적 지원 없이는 불가능하다. 물론 아무리 물적 자원이 많아도 지원자가 없으면 허사이다. 따라서 이 두 가지 중, 어느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필수 불가결의 요소이다. 감리교회 한국 선교는 가우처라는 분의 헌신적 노력과 당시 돈으로는 거금인 2천 달러를 회사함으로 선교가 가능했다. 장로교회 역시 맥윌리엄스가 5천 달러라는 거금을 회사하지 않았다면, 알렌이나, 언더우드의 한국행은 얼마나 지연되었을지 알 수 없다. 이렇게 물질적으로 헌신한 이들이 있어서 감리교회나, 장로교회의 선교가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그러므로 한국 감리교회는 배제 학당과 정동감리교회를 세운 아펜젤러나 이화학당을 세운 스크랜톤 뿐만 아니라, 이들이 한국에 올 수 있도록 물질적 토대를 마련한 가우처 박사를 기억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장로교회 역시, 현재의 세브란스병원의 기초를 놓은 알렌 의사나, 새문안교회와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선교사뿐만 아니라 맥윌리엄스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한다. 왜냐하면 이들의 헌금으로 한국 선교가 이른 시일에 가능했기 때문이다.

<3단계 영어> Three-Level English Education(35)

English Beginning Level (초급영어 35회)

What did you do in your country?
당신은 당신의 나라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I was a mechanic in my country.
나는 나의 나라에서 자동차 정비공이였습니다.
What does a mechanic do?
자동차 정비공은 무엇을 합니까?
A mechanic fixes cars.
자동차 정비공은 차들을 고칩니다.
What did your brother do?
당신의 동생은 무엇을 했나요?
He was a plumber.



배효식 교수 미국침례신학교(ABSW)

그는 배관공 이였습니다.

English Intermediate Level (중급영어 35회)

He said to the people who had been selling doves, "Get those doves out of here! Don't make my Father's house a marketplace." The Disciples then remembered that the Scriptures says, "My love for your house burns in me like a fire."

그분은 비둘기를 계속 팔아 온 사람들에게 말했다. "여기에서 비둘기들을 쫓아 내시오. 나의 아버지의 집을 시장 바닷으로 만들지 마시오." 제자들은 그때 성서가 말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당신의 집에 대한 나의 사랑은 나에게 불길처럼 타 오릅니다."

English High Level (고급영어 35회)

What is the definition of a good friend? This is my commandment, that you love one another as I have loved you.
The greatest way to show love for friends is to die for them. You are my friends, if you do what I command you. Who is my best friend in my life? Jesus commands us to love one another. He is our best friend because he died for us to pardon our sins.

좋은 친구의 정의는 무엇인가? 너희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나의 계명이다.
친구들을 위하여 사랑을 보여 주는 최대의 방법은 그들을 위하여 죽어 주는 일이다. 너희는 내가 명령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인 것이다. 누가 나의 생활 속에서 나의 가장 좋은 친구란 말인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다. 그분이야말로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돌아 가셨으니 우리들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신다. (계속)

여드름, 성공률 99%

효과 없을시 **100%** 환불

몸속의 원인을 다스리고 피부의 내면과 외면을 동시에 치료합니다.

첫상담 무료!

경산 한의과병원 원장 류재규
KYUNG SAN ACUPUNCTURE CLINIC | 경산 한의과대학 교수

Tel: **213.380.0853**
3030 W. Olympic Blvd., Suite 202-203(삼호관광 물 2층) LA, CA 90006

복새통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추천

붓다의 십자가 1, 2

김종록 | 김영사

<소설 풍수>의 작가가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신의 흔적'을 파헤치는 미스터리 판타지. 고려 최대 국책 프로젝트 팔만대장경에 새겨진 '예수'의 정체를 찾아내려 하면서, 그 시대 이 땅에 전해진 기독교(경교)의 흔적을 드러낸다. 파격적인 가설을 토대로 종교와 시대를 흥미진진하게 아우른다.



이젠 아프지 않아

크리스틴 스테클리 | IV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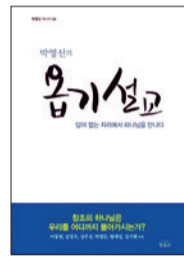
한 이혼 가정 자녀의 갈등과 치유 이야기. 저자는 이혼 가정 자녀들에 대한 동정심을 불러 일으키거나 이들의 고통을 호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치유를 말한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나 하는 문제와 씨름하는 것이다.



박영선의 옴기 설교

박영선 | 영음사

옴기는 어렵다. 세 친구의 이야기는 옳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렸다고 한다. 옴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죽고 싶다고 하소연한다. 게다가 옴은 말을 하는 친구들에 맞서 싸운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신다. 박목사가 2012년 4월부터 1년간 수요예배에서 설교한 내용을 담았다.



인생은 아침 태양처럼

김선태 | 한국장로교출판사

6·25 때 두 눈을 잃은 시각장애인으로서는 실로암안과병원을 세우고, 개안수술로 수만 명에게 광명을 찾아주며 막사이사이상을 수상한 저자의 에세이.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을 테마로 행복과 희망을 이야기한다. 그가 깊이 느낀 행복·희망·사랑은 결국 인간을 만드는 인생의 지표이자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다.



REVIEW

한국교회의 윤리적 실패는 '짬뽕 신학' 때문인가

'한국교회 위기론'에 대한 여러 진단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침례교 소장 신학자 신광은 목사(열음터교회)의 <천하무적 아르뱅주의>에서 그 원인을 '빚나간 구원론'에서 찾고 있다. '아르뱅주의'는 전작 '메가처치 헌상'이라는 용어를 만들어낸 저자의 신조어로, '아르미니우스주의'와 '칼뱅주의'의 앞글자를 따 붙였다. 아르뱅주의는 간단히 말해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의 '구원의 확신'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절대 취소시키지 않으신다'는 칼뱅주의의 '성도의 견인'이 결합된 것. 책에서 저자는 구원의 선택권은 인간에게 있으나(아르미니우스주의), 구원의 취소권은 하나님께 있다(칼뱅주의)는 주장으로 한국교회가 21세기형 면죄부를 발행하고 있고, 이처럼 '예곡된 이신칭의와 예정론'으로 한국교회가 윤리적 실패를 겪고 있다고 진단한다. 저자는 "아르뱅주의라는 신학은

존재하지 않고 누구도 이를 정리해 발표한 적도 없지만,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만들어내는 강력한 긴장이 점점 이완되는 과정 중에 돌이 서서히 가까워진다. 나중에는 아예 두 신학의 요소들 중 마음에 드는 것만을 뽑아 하나로 결합해 만들어낸 신학"이라며 "이는 대중의 취향에 맞추려는 수많은 신학자와 목회자가 공동으로 참여해 만들어낸 신학으로,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가 신자들에게 가하는 긴장을 제거하여, 편리하고 듣기 좋고 부담 없는 요소만을 모아 만든 대중적 취향의 신학"이라 주장하고 있다. "현장에서 출발하여 신학적 의미를 찾는" 형태로 연구를 진행해 온 저자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잇따른 주문의 근본적 원인을 탐구하다 이러한 구원론적 문제점을 발견하게 됐다고 한다. 저자는 "천박한 기독교의 설교에 따르면 모든 죄는 다 똑같이 지옥에 던져질 죄로 '죄의 평준화', 선인과 악인,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영혼의 민주화'가 이뤄진다"며 "그 결과 발생한 '은총의 동일화'는 이신칭의(以信稱義) 교리와 결합하면서 '믿기만 하면 큰 죄든 작은 죄든 무조건 용서받는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했고, 회개를 관념화시키면서 결국 성도들에게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책은 한 달 전 출간 당시 특히 평신도들에게 많은 지지를 받으며 SNS상에서 꽤 회자된 바 있다. 이러한 현상과 아르뱅주의 등 한국교회 구원론의 문제점들에 대해 목회자 및 신학자들은 저자가 제기한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동의하면서도, 칼뱅주의와 아르미니우스주의 구원관을 '무 자르듯' 나눠야 하는가에 대해선 의문을 표했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도덕적 타락'과 신학적 부패'라고 요약한 것은 김세운 박사(풀러신학교)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지난해 한 강연에서 "보수 교회에서는 어디까지나 교리에 맞춰 성경을 해석해야 한다고 말하



천하무적 아르뱅주의 신광은 | 포이에마 | 512쪽

관점을 가지고 목회자들은 설교를 하는데, (아르뱅주의가 제기한 구원론적 문제점은) 제가 볼 때 편향대로 설교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칼비니안 입장에서만 구원을 말하면 알미니안들이 정죄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안에 대해 저자는 "아직 써 내진 못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저 아르뱅주의를 벗어버리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고 입술로 고백하며, 아르뱅주의를 벗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야말로 대안으로의 출발"이라고 말하고 있다. 책에서는 '새로운 구원을 위한 네 가지 지침' 정도를 제시하고 있는데, 저자의 문제제기가 '메가처치 헌상'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라면, 150명이 넘는 젊은 목회자들이 이를 수 있다는 <153 교회>의 내용이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대웅 기자

<p>세종 송보감</p> <p>“충추는 당뇨를 잡아라” “막힌 혈관을 뚫어라”</p>	<p>뇌보감 골드</p> <p>“치매예방, 뇌졸중예방” “기억력을 개선합니다”</p>	<p>高麗발효삼</p> <p>“항암 효과, 기력향상, 원기회복” “고려대학교, 액스 생명연구 개발”</p>	<p>세종 요로청보감</p> <p>“요실금, 오줌소태 개선” “전립선건강에 탁월한 효능”</p>	<p>퍼스트레이디</p> <p>“여성건강, 생리활성” “불가리아 장미오일 캡슐”</p>
--	--	--	--	---

세종바이오텍 SEJONGBIOTECH, INC 문의 : 213-383-8899 www.sejongbiotech.us

판매처
 코리아타운 세종바이오텍 엘에이지사 (월서와 버질길 복음방송2층, 213-383-8899)
 가주건장종합백화점 (한남체인권너편 천홍신상점, 213-388-1234)
 비타민 아울렛 (아씨마켓 건너편, 213-382-1252) 월튼캘리포니아아카데미213-388-4100
 글렌데일 한국약국 (글렌데일 한국마켓 내, 818-637-7708)
 세리토스 웰빙건강&선물 (세리토스 시몬마켓내, 562-403-0282)
 부에나팍 네이처영양센터 (부에나팍 한남체인내, 714-690-0120)
 샌디에고 굿모닝약국 (레이시온로드 교차로 스타벅스커피점상층내, 858-268-1660)
 가든그로브 네처건강센터 (9852가든그로브빌딩 3층, 714-539-3763)

초스피드 다이어트 구연산 판매합니다.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1주에 7파운드~2.5파운드

초강력 정력제 + 원형탈모 대머리
치질 항문 문제로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하는 증상
자궁물혹이나 자궁근종 하혈이나 통증으로 수술해야 되는 분

배배는 숙변약
몸 전체 부종 빠지는 약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Clinic & Herb T: 213.380.7800 / **각종보험취급**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드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걸리버 여행기 : 인간이 신이 된 시대에 인간을 고발하다

[기독교 고전 다시 읽기 3] '완역판' 걸리버 여행기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가 재주를 부린다. 재주를 다 부린 호랑이는 관광객이 구경할 수 있도록 유리막으로 가려진 우리로 들어간다. 우리가 읽은 걸리버 여행기는 우리 안의 호랑이었다. 사람들을 위해 '쇼' 하는 동물원 호랑이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이빨 빠진 호랑이였다. 영화나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걸리버 여행기는 '이빨 빠진 호랑이' 버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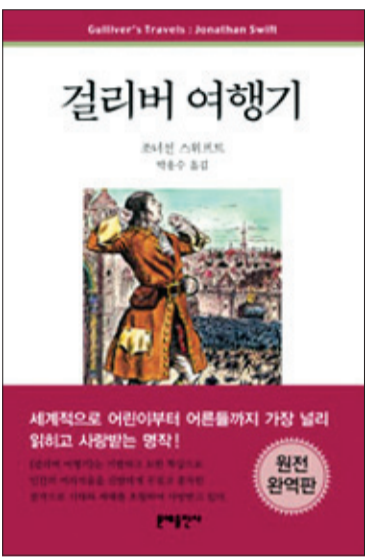
완역판 걸리버 여행기를 읽었을 때, 지금까지 알았던 것과 전혀 다른 소설을 읽는 느낌이었다. 첫 느낌부터 말해야겠다. "충격이었다."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걸리버 여행기가 아니었다. 위험하고 과격했다. 동물원의 호랑이가 아닌, 초원에서 으르렁거리는 동물의 왕이었다. 개작되지 않는 원전 번역판은 초원에서 군림하는 야생의 호랑이였다. 은밀하게 접근하여 맹렬(猛烈)하게 공격한다. 도망가는 사슴을 거대한 앞발로 짓어 버린다. 비틀거리는 사슴의 목을 누르고 포효(咆哮)한다. 약간은 긴장되고, 약간은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저자를 찾아가 보았다. 그의 출생과 성장 배경, 당시의 정치적 상황 등을 추적하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찾아보았다.

스위프트는 1667년 11월 30일, 그러나 명예혁명이 일어나기 직전에 아일랜드의 수도인 더블린에서 태어난다. 어릴 때부터 백부의 손에서 자라났으며, 더블린의 트리니티칼리지에서 공부한다. 영국 런던으로 건너와 어머니의 먼 친척인 W. 템플 경 아래에서 생활을 한다. 당시 W. 템플 경은 정치계의 거물이었고, 영국의 정치 흐름을 주도하는 사람 중 하나였다. 그곳에서 고전과 역사를 배우고 정치인들과 관계를 맺으며 정계 진출을 꿈꾼다. 도중에 아일랜드로 돌아가 사제가 되었는데,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 템플 경 아래서 활동한다. 1690년대부터는 시와 문장을 배워 첫 책 '책들의 싸움'과 '똥 이야기'를 쓴다. '똥 이야기'는 훗날 스위프트의 명작이 될 '걸리버 여행기'의 씨앗이 된 작품이다. '똥 이야기'는 가톨릭과 개신교, 영국 국교회의 싸움을 풍자한 것으로, 부친에게 상속받은 웃웃을 서로 차지하려는 세 아들의 이야기다. 이 책을 통해 인정을 받은 그는 정치계로 입문할 기회를 얻는다. 그러나 불행히 후원자인 친척 템플 경이 사망하여 좌절되고 만다. 그 후 1713년부터는 더블린의 성 패트릭 수석사제가 되어 정치인들의 야만적 행동을 고발하는 소설을 쓰게 되는데, 그 소설이 바로 '걸리버 여행기'다.

스위프트의 정치적 배경을 잠깐 살펴 보자. 할아버지 토머스 스위프트는 영국 국교도 성직자였다. 크롬웰에 의해 청교도 혁명이 일어나 핍박을 당했지만, 찰스 2세를 통한 왕정복고가 이

루어지자 영국으로 건너가 법률 계통에서 일한다. 국교도의 영향을 받았고, 더블린에서 국교회의 사제가 된다. 당시 프랑스와 영국은 종교와 정치적 문제로 끊임없이 전쟁을 벌인다. 끝나지 않는 전쟁을 통해 100만 명이 넘는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의미 없는 전쟁은 생명 뿐 아니라 재정적 손실을 가져온다. 일반 시민들은 전쟁 비용을 대기 위해 엄청난 세금 세례를 감내해야 했고, 이로 인해 궁핍하고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했다. 스위



조너선 스위프트(Jonathan Swift) 문예출판사 | 408쪽

프트는 명분도 없는 전쟁을 혐오했으며, 백성들을 염두에 두지 않은 채 탁상공론을 일삼는 황실과 정치인들에게 분노를 느꼈다. 이러한 황실의 어리석음과 부덕(不德)함이 소인국과 거인국의 전쟁 이야기에 스며들어 있다.

소인국, 거인의 눈으로 인간의 우둔함을 보다

걸리버의 첫 여행지는 소인국 릴리푸트다. 그는 그곳에서 황제의 명을 받아 적을 위해 싸우는 숨은 병기가 된다.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수천 명의 백성들의 음식과 천을 소비한다. 걸리버는 소인국 사람들에 비해 크기는 12배였고, 몸통은 1,728배가 되었다. 그의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3백 명이 동원된다. 과시하기 위해 힘에 겨운 아파드나 자가용을 굴리며 허세를 부리는 인간을 그대로 닮아 있다. 이 뿐 아니다. 이들은 구두의 뒷굽이 높은 당과 낮은 당이 있어 격렬하게 싸운다. 더 우스운 건 계란을 깨 때 얇은 쪽으로 깨는 왕의 명령보다 두꺼운 쪽으로 깨는 전통을 지키기 위해 반란을 일으키고 죽음을 불사한 이들도 있었다는 것이다.

"계란의 얇은 쪽을 깨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의 수가 반란 때마다 1만 1천명을 넘는다고

집계되어 있소. 그 논쟁에 관해 몇백 권에 달하는 책이 출판되었소이다."

산 위에 올라가 세상을 보면 모든 것이 작게 보이고 하찮아 보인다. 그토록 소중하게 보이는 것들도 높은 곳에서 보면 아무 것도 아니다.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면 길을 잃고 만다. 세세한 것에 집착하면 큰 흐름을 놓치게 되어 잘못된 길로 빠진다. 거인이 된 걸리버는 소인국에서 인간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을 본다. 벌레와 같은 인간들이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 과도한 지출과 허세를 부리다 파탄에 이른다. 영적으로 탁월한 삶을 살았던 이들은 현실과 이상의 조화를 잊지 않았다. 현실



걸리버 여행기 삽화(좌)와 원작 삽화(우) ©대원키즈노블 제공

에 성실하게 살아야함이 맞지만, 때론 높은 산에 올라 허술하고 미천한 인간의 나약함을 봐야 한다.

거인국, 소인의 눈으로 인간의 조야함을 보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사람이 없다'(눅 4:24)고 하셨다. 모든 것이 멀어서 보면 아름답지만, 가까이 가면 조야하기 그지 없다. 두번째 여행지인 거인국 브로브딩냐에서 또다른 인간의 모습을 발견한다. 아름답게 치장하고 그들만의 미(美)의 기준을 가지고 있다. 걸리버는 소인의 눈으로 그들을 가까이서 바라본다. 그들의 소리는 천둥치는 소리 같고, 그들의 피부는 반점과 죽은 개가 덕지덕지 붙어 있어서 흉측해 보인다. 음식은 계걸스럽게 먹어댄다.

"나는 그 때 영국 여인들의 하얀 피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다. 그들은 우리가 언뜻 보기에는 매우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것은 그녀들이 우리와 체구가 비슷하고 확대경을 통해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확대경으로 자세히 뜯어 본다면 아무리 아름답고 부드러운 피부도 거칠고 흉하게 보일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현미경으로 바라보신다. 인간의 기준으로 아무리 아름답고 고귀한 가치를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벌레요 짐승'에 불과하다. 걸리버는 소인국의 때를 기억하고 그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얼마나 흥족하게 보였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 역겨웠던 것은 거인들의 옷에 기어 다니는 '이'였다. 영국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뚜렷하게 이를 맨눈으로 보고 기겁을 한다. "그 벌레의 다리나 돼지처럼 입을 먹이에 처박은 모습을 보았던 것이다. 내가 생긴 처음 보는 이였는데, 너무 역겨워서 구역질이 날 정도"였다.

거인에 비해 작은 체구를 가진 걸리버는 또다른 어려움에 봉착한다. 파리가 술개만큼이나 크고, 쥐나 고양이

가 크다." 걸리버는 거인국에서 소인국의 때를 기억하며 역지사지(易地思之)의 교훈을 배운다.

라퓨타의 나라, 자기당착(自家撞着)에 빠진 인간의 어리석음

3부에서는 하늘에 떠 있는 라퓨타의 나라와 그 외 나라를 여행한다. 이곳에서는 학문의 세계에 깊이 빠져 생활이 불가능한 학자들이 나온다. 그 나라 사람들은 '때리기꾼'을 고용하여 데리고 다닌다. 그들은 이야기해야 하는 사람이나 들어야 할 사람을 때려 정신을 차리게 하는 역할을 한다. 하염없이 생각하는 그들은 늘 불안에 휩싸여 있고, 걱정과 근심에 파묻혀 산다. 지식이 평안을 주지 못하고 '많이 공부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피곤하게 한다(전 12:12)'는 전도서 말씀이 생각난다. 마지막 4부에서는 말의 나라를 소개한다. 조너선 스위프트는 말의 나라를 가장 이상적인 나라로 소개한다. 그들은 '야후'라는, 인간처럼 생긴 동물을 부린다. 걸리버는 여기서 인간이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동물과 별반 다르지 않음을 이야기한다.

나가면서

존 메이시는 이 작품에 대해 "우리 인간이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냉철한 전망과 뜨거운 분노라는 남다른 결합으로 보았으며, 우리는 무자비하게 채찍질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가 미워한 것은 사람이 아니라 거짓이었으며, 그 스스로는 아주 정직한 사람"이라고 평한다. 스위프트는 걸리버 여행기에서 어리석고 탐욕스러운 인간을 그린다. 그러나 메이시가 평한 대로 이는 사람이 아닌 죄에 대한 분노였다.

이 작품은 인간을 너무 비판적 시각으로만 보았다는 비평을 듣기도 하지만, 그렇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만든다. 인간의 이성을 신처럼 떠받들던 18세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도무지 희망 없는 인간을 그려냈다. 우리를 겸허하게 만든 걸리버 여행기를 사순절을 맞아 함께 읽어보는 것은 어떨까.

정현욱 목사(부산극동방송 '책과 음악의 행복한 만남' 진행 / 부산반석교회 부목사)

이제부터 수련회는 "윌리엄 케리 국제 대학교" 에서!

1539 E. Howard St. Pasadena, CA 91104. 626.398.2415
conference@wciu.edu www.wciuproperties.com/

척추 전문 새로운 한방병원

비 수술 척추 디스크치료 척추 한방 병원

원장 장재수
40년 경력 척추 자세교정 전문가

▶ 디스크 치료 후에도 계속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

▶ 팔이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거나 감각이 없으신 분

▶ 목을 돌리기 힘들고 통증이 있으며 손가락에 감각이 없으신 분

▶ 어깨 통증으로 팔을 들어 올리기가 힘든 분

▶ 잠을 자고 난 후 갑자기 목을 움직이지 못하며 통증이 심하신 분

▶ 갑자기 허리를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신 분

▶ 지긋지긋한 허리통증과 만성 디스크로 뼈뺀어친 척추

▶ 엉치 및 다리가 뻣고 저리며 통증이 있으신 분

▶ 물건을 들다가 뼈긋하여 허리가 아픈 분

▶ 그 외 척추로 인한 모든 질병 걱정 닦!

비 수술 척추 **추나 치료**

척추 교정으로 **척추질환**과 **척추 통증 치료 예방**이 가능합니다.

특진안내

- ▶ 증풍
- ▶ 안면신경마비
- ▶ 척추디스크 요통
- ▶ 목디스크, 어깨통증
- ▶ 무릎 관절염
- ▶ 위장병, 변비
- ▶ 갱년기 장애
- ▶ 산전산후 보약
- ▶ 어린이보약, 성장탕
- ▶ 심장병, 노이로제
- ▶ 두통, 치통, 산후통
- ▶ 관절통

진료과목

- 침구과
- 한방 소·아과
- 한방 내과
- 한방 신경정신과
- 한방 산부인과

T. 213)219-2739, 323)737-3789

3513 W. Olympic Blvd #102, Los Angeles, CA 90019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Classified AD

혜밀리 자동차 FAMILY AUTO SALES

새차 리스, 중고차 최고가 매입 HONDA, TOYOTA, LEXUS, BMW, MBZ (하이급차, 고급차, 유럽차, 일제차)

Tel. 323.737.5900 Fax. 323.737.5987
933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중고차 황제 김기형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전문

(213) 342-7776 월서+킹슬리

페인팅 (PAINTING) 마루 (Hard-wood Flooring)

정직 (HONESTY)! *HAND MEN AVAILABLE

(213) 923-2915 U.S. ENTERPRISE Co.

법률 문제로 답답한 가슴을!!

공인 법무사(CERTIFIED L.D.A & PARALEGAL #227 / BOND 5785BF11090)인 제가 속 시원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한테 가지기전에 "꼭 먼저" 만나 보아야 할 사람입니다!

퇴거, 파산, 이혼, 이민, 민사소송
기타 각종 법정 서류 작성

714-667-0728 (영어) 2112 N. MAIN ST. #290, SANTA ANA
213-487-0728 (영어) 1543 W. OLYMPIC BL. #422, LA

TONERSUM 가격 때문에 컬러 레이저 프린터 사용을 망설였던 목회자분들에게 희소식!

Only \$99.99/month (up to 2000 pages)

프린터 판매 및 리스 삼성토너 스페셜 리스트

HP, Brother Big Sale Tel. (626) 802-5712

사고 판다 New & Used Buy & Sell

각종 조립식 선반 전문

Select color

아외용 천막 Canopy Size (5'x5') (10'x10') (10'x20')

상점 및 그리지용 Boltless Shelving

99센트 마켓 선반, 창고 선반 수량 불문 현금 매입

조립식 선반을 전문으로 취급하여 달려있을 보유안 선반 전문 회사

(323)855-5687 / (213)200-3050 / (213)623-5491
646 S. San Pedro St. Los Angeles, CA 90014 Downtown LA (Between 6th, 7th St)

커튼 전문

가 주 **L.A. 커튼**

"우드셔터, 각종 블라인드, 썬 스크린 롤러 Shade"

거리 불문 무료견적

HunterDouglas Sunland Shutters 공인딜러

Tel. 213.447.1101 43406 Standcliff Ave. Lancaster, CA 93535

K.T. 택배 T. 213-365-8588

말도 안되는 가격 \$ 6.99 초고속 픽업 & 배송!!

전화 한통화로 당일무료 픽업!

무료포장 (박스, 충격흡수제 무료)

최저 가격!! 인터넷 사업자 대박우대

소량화물 4개중 1개 공짜!

"가격은 낮추고 서비스는 최고로 모시겠습니다"

법무사 사무소 법적 해결

소장: Kenny Oh (323)377-5702 ko7law@gmail.com

변역 (학술/사업/개인) | 법정통역, 소송/방어서류

민사법 의도/과실/사기/부당 행위 피해, 입주자분쟁(소송/방어) 접근 금지 법원 명령

계약법 작성/분석/분쟁/수금문제 가정보약식/일방이혼

1543 W. Olympic Bl. #580 L.A. CA 90015 Law Office of R. Song

모/든/문/제/체/류/신/분/과/무/관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삼성통운 SAMSUNG EXPRESS

귀국 · 시내 · 타주이사 · 차량운송

한국식 포장이사도 해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전화 877-580-2424 310-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90248 www.easy2424.com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온돌마루

UL마크 인증제품 사용 NRTL(미국 전기 안전 규격제품).

확기적인 절전제품 / 전자파제로

안방 아랫목, 거실, 기도실, 유아방, 찜질방 설치중

피코 건축자재 (피코+카탈리나) 213)256-4884

A-1 정비 오일 교환

엔진 & 미션 전문 76 오일사용

트랜스미션 타이밍벨트 브레이크 튜닝정비

10% 할인

\$23.99 *tax 6cyl.
\$18.99 *tax 4cyl.
\$28.99 *tax 8cyl. (Carbon Filter Extra)

Tel. 323.737.2922 Trans (323)731-0613 Engine (323)752-2971

- 시온마켓 내 -

치우차우만두

찐빵, 고기만두, 김치만두, 아채만두, 올만두, 군만두

교회 단체주문 환영합니다. 냉동만두 판매/배달합니다.

CHIU CHAU MANDOO 213.368.0922
3500 W. 6th St., Suite 100 Los Angeles, CA 90020

한방생리대 도.소매 G. Together Inc.

인삼생리대, 익모초생리대, 한방생리대

Edward Kim 김인태, CEO
213-392-2323 (Korean) 213-500-5896 (English)
3544 W. 3rd St. Los Angeles, CA 90020 / G_Together_Inc@yahoo.com

베데스다 의료 봉사센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의료혜택을 못받는 분들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차과와양, 한방등의 진료의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문의전화 213-384-7078

자신의 효능을 느껴보십시오. 미국과 한국의 전문가가 추천하는 동의당뇨환!

동의당뇨환 II

당뇨병, 이제 3일이면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문 추천 1: 한태성 박사(67세) 당뇨환자... 전문 추천 2: 은퇴하신 함옥사님 72세 당뇨투병 35년...

동의당뇨환II의 특징 *특별 상담해 드립니다

- 100% 순수 한국산 천연 한약재만을 사용
- 처음부터 혈당 강하제, 인슐린 주사를 끊게해 줌
- 1~2주내에 정상 혈당치로 돌아옴
- 피를 맑게 하는 성분이 포함되어 최대의 합병증을 억제해 줌
- 식후 3회만 복용합니다.

편강 · 실로암 한의원 원장: Oh, Pyong Un

전화 : (213)427-0036, (213)675-8524, Fax: (213)427-0195
2621 W.Olympic Bl. #202 Los Angeles, CA 90006 www.siloamherbal.com

편도선염, 비염, 천식, 아토피의 "편강환"

서효석 박사 연구팀이 폐의 기운을 복돋운 결과, 폐질환은 물론, 피부질환까지 그 효능이 탁월해서 전세계인에게 보급시키고자 미국에 상륙시킨 편강환!

임상실험에서 그 효능이 입증된 증상들

- * 목 감기(편도선염) * 기관지 확장
- * 코감기 및 비염 * 폐기종
- * 기관지염 및 천식 * 폐성유학
- * 어린이의 감기 예방 * 폐렴
- * 아토피성 피부염 * 기미, 여드름, 주근깨, 검버섯

win HYUNDAI 원현대 칼슨

2014 스페셜 LEASE 프로그램과 2013 모델 스페셜 **창고정리 대세일!!**

Alex Shin 한인 Manager
2201 E. 223rd St., Carson, CA 90810
ashin@winhyundaicarson.com
Phon: 310.830.5100 (Ext 653)
Cell : 562.900.2399
Kakao ID: alexshin878

현대차를 원하시는 당신께 최고의 가격을 제공하겠습니다!!
www.winhyundaicarson.com
다 나가기전에 빨리 전화주세요
브로커 환영

주말에도 오픈합니다.

유학생, 상사주제원 도와드립니다. Bad Credit, No Credit 연락주세요
미 서부지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딜러

All advertised prices exclude government fees and taxes, any finance charges, any electronic filing charge, and dealer document processing charge, and any emission testing charge. All vehicles are at Carson location. Offers available through Jan. 27, 2014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남가주 부활절 연합집회 및 제 2차 미스바 대성회

“오늘 미스바에 모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느니라”



박찬이 목사
(Pastor Park Chan Yee)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연합신학교 이사장
오순절 성령의 불타는 성회 주강사
(총무체육관외 45회)
세계미술사범선교연맹 부총재
제40회 세계미술사범선교대회 대회장 역임
Inland Mission University 명예신학박사
현 성령바람교회 담임목사
현 성령불기도센터 원장
현 (사)민족복음화여성운동본부 부흥사
현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부흥사협의회 상임회장
현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회 부흥사협의회 전임강사
현 LA ChristianVision 신문 이사장

정광희 목사
(Pastor Jeong Kwang Hee)

대한예수교장로회 전주연합신학교 이사
Canada Christian College 목회학박사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전임본부장 역임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시설국장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연수원 36기 2대 회장
(사)시온재활복지센터 이사
세계미술사범선교연맹 부총재
오순절성령의불타는성회 전임강사
(총무체육관외 45회)
현 성령바람교회 담임목사
현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 부흥사
현 LA ChristianVision 신문 이사

4월 18일(금)

정광희 목사/박찬이 목사
(오후 7시 30분)

4월 19일(토)

정광희 목사/박찬이 목사
(새벽 5시 30분/오후 7시 30분)

4월 20일(주일)

정광희 목사/박찬이 목사
(새벽 5시 30분/오후 4시)

임원진 소개

- ▶ 회 장 : 박효우 목사, ▶ 이 사 장 : 김복삼 장로
- ▶ 수석부회장대행 : 원영호 목사
- ▶ 부 회 장 : 강용순 목사, 강종민 목사, 고재원 목사, 김광수 목사, 김바울 목사, 김선국 목사, 김성일 목사, 김영배 목사, 박은종 목사, 서오석 목사, 이동준 목사, 이모세 목사, 이우형 목사, 이주철 사관, 정영희 목사, 정우성 목사, 이춘준 목사, 지윤성 목사
- ▶ 총 무 : 정충일 목사 ▶ 부 총 무 : 김영구 목사, 김성실 목사
- ▶ 협 동 총 무 : 남철우 목사, 각지역 총무단 ▶ 서 기 : 차권희 목사
- ▶ 회 계 : 김철수 목사 ▶ 부 회 계 : 진석호 목사
- ▶ 감 사 : 정삼희 목사, 노승용 장로

주관: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323-735-3000)

장소: 동양선교교회 (323-466-1234)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HYUNDAI
Official Partner



FIFA WORLD CUP
2014

HYUNDAI
100,000
REASONS EVENT

www.phhyundai.com
북미 최대 한인 현대 딜러

푸엔테힐즈 현대

SUPER STORE

2013년 모델

Clearance Sale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New!



\$199 +TAX

**2013 SONATA
HYBRID LIMITED**

Model# G0432F4S

MSRP: \$31,540. 36 months lease \$2,999 due at lease signing
\$1,0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rebate, \$500 boost up cash.

**100대가 넘는
2013년식
신형 차량 보유**

New!



2013 GENESIS SEDAN \$279 +TAX
(TECHNOLOGY PKG)

Stock# DU249043, DU247931, DU242510

MSRP: \$44,575. 36 months lease \$7,999 due at lease signing
\$1,50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400 college gradrebate, \$500 boost up cash.

New!



2013 SANTA FE SPORT \$299 +TAX
2.0T (LEATHER & PREMIUM EQUIPMENT PACKAG)

Stock# 83072

MSRP: \$31,725. 36 months lease \$3,999 due at lease signing
12k miles/ year. \$1000 retail bonus cash. \$750 Competitive owner coupon.
\$500 Military rebate. \$500 Boost up cash. \$400 College grad rebate.



스티브 장
626.513.4006



찰리 정
626.513.4981



저스틴 길
626.513.4580

HYUNDAI Assurance

America's Best Warranty*

10-Year/100,000-Mile
Powertrain Limited Warranty

푸엔테힐스현대에서 함께 일할 세일즈맨을 모집합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주세요

1-888-850-2077

17621 Gale Ave., City of Industry, CA 91748
LA한인타운과 오렌지카운티에서 20분거리

*NO PURCHASE NECESSARY. Sweepstakes begins at 12:00 A.M. PDT on 3/22/14 and ends at 11:59:59 P.M. PDT on 5/4/14. Open only to legal residents of the 48 contiguous U.S. and D.C. who are at least 21 years old and licensed drivers. (2) Grand Prizes, each valued at \$20,000, will be awarded. Odds of winning depend upon the number of eligible entries received. Void in AK, HI, PR, and where prohibited. Sweepstakes subject to complete Official Rules, available at http://bit.ly/event_rules. Sponsor: Hyundai Motor America. FIFA World Cup™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the Fédé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and is used under license.

DRIVE현대

Let's GO to 브라질

오늘 붉은 악마 티셔츠도 받고
월드컵 관람의 행운도 잡으세요!

푸엔테힐스 현대에서
브라질 월드컵으로
가는 행운을 만나자.

① ABC HYUNDAI를 방문, 현대자동차를 시승하시면
붉은 악마 공식 티셔츠 증정
*달리마다 수량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② 현대딜러를 방문하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2명에게 2014 FIFA World Cup™ 한국 vs 러시아
경기티켓 및 6박7일 여행권 1인당 2매 증정**

행사기간: 3월22일~5월4일

자세한 내용은 딜러에 문의하시거나
Facebook.com/HyundaiKA 를 참조해주시시오